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어음책마을 조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김 해 숙

2017년 8월

어음책마을 조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

지도교수 양 진 건

김 해 숙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김해숙의 사회교육학(스토리텔링)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7년 8월

목 차

【국문초록】

【Abstract】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3
II. 이론적 배경	5
1. 마을만들기의 개념	5
1) 마을만들기의 정의	5
2) 마을만들기의 원칙	7
3) 마을만들기의 현황 및 본질	8
2. 책마을 만들기의 의미	12
III. 국내·외 책마을 사례 및 국내 책마을 탐방	14
1. 국내·외 책마을 사례	14
1) 국내 사례	14
2) 국외 사례	18
3) 사례분석을 통한 어음책마을의 방향성 고찰	22
2. 국내 책마을 탐방 및 분석	23
1) 책마을 탐방	23
2) 탐방 책마을 분석	29

IV. 어음책마을 만들기 기본 구상	31
1. 어음 1리 현황 및 특성	31
1) 마을 현황	31
2) 마을 특성	33
2. 어음책마을 인식 조사 및 분석	36
1) 설문지 조사	36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43
3. 어음책마을 만들기 방안	46
1) 어음책마을 스토리텔링 전략	46
2) 어음책마을 스토리텔링	50
V. 요약 및 결론	68
참고문헌	70
부록	

표 목 차

〈표 1〉 제주 마을만들기 현황	10
〈표 2〉 국내 책마을의 특징	17
〈표 3〉 국가별 책마을 특징	21
〈표 4〉 어음 1리 면적	31
〈표 5〉 어음 1리 인구	32
〈표 6〉 어음 1리 주요 업체	33
〈표 7〉 어음 1리 2015년 마을 사업	34
〈표 8〉 설문지 구성목록	36
〈표 9〉 책마을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	37
〈표 10〉 책마을 운영 주체 인식조사	38
〈표 11〉 어음책마을 내용 구성 인식	39
〈표 12〉 예상되는 문제점	40
〈표 13〉 책마을 만든 후 기대효과	40
〈표 14〉 응답자 특성	41
〈표 15〉 책마을에 대한 인식과 기대효과	43
〈표 16〉 어음책마을 만들기의 예상되는 문제점	45
〈표 17〉 어음책마을 컨셉트와 의미	49
〈표 18〉 어음책마을 스토리의 원형과 변형	54
〈표 19〉 어음책마을 스토리텔링 내용 구성	55
〈표 20〉 올레 시설운영 (1)	56
〈표 21〉 올레 시설운영 (2)	57
〈표 22〉 발담 시설운영 (1)	57
〈표 23〉 발담 시설운영 (2)	58
〈표 24〉 폭낭 시설운영 (1)	59
〈표 25〉 폭낭 시설운영 (2)	60
〈표 26〉 폭낭 시설운영 (3)	60
〈표 27〉 올레 프로그램운영 (1)	61
〈표 28〉 올레 프로그램운영 (2)	62

〈표 29〉 올레 프로그램운영 (3)	63
〈표 30〉 발담 프로그램운영 (1)	63
〈표 31〉 발담 프로그램운영 (2)	64
〈표 32〉 발담 프로그램운영 (3)	65
〈표 33〉 폭낭 프로그램운영 (1)	65
〈표 34〉 폭낭 프로그램운영 (2)	66

그림 목 차

< 그림 1> 국내 책마을 위치	14
< 그림 2> 유럽의 책마을 위치	18
< 그림 3> 해리책마을 안내판	24
< 그림 4> 운전기	26
< 그림 5> 해리책마을 활자판	26
< 그림 6> 삼례 북하우스	29
< 그림 7> 어음 위치	31
< 그림 8> 어음 1리 위치	32
< 그림 9> 어음마을 팽나무	34
< 그림 10> 공샘이물	35
< 그림 11> 마을 공동창고	35
< 그림 12> 마을 운동장	35
< 그림 13> 어음책마을 지도	46
< 그림 14> 어음책마을 스토리텔링 전략	47
< 그림 15> 어음책마을 테마	48
< 그림 16> 어음책마을 콘셉트 1	50
< 그림 17> 어음책마을 콘셉트 2	50
< 그림 18> 어음책마을 콘셉트 3	50

【국문초록】

어음책마을 조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

김 해 속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지도교수 양 진 건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 1리를 책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책마을이란 책과 문화·예술이 접목되어 책의 판매, 전시, 책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주로 하는 ‘책으로 특화된 마을’을 말한다.

이러한 책마을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마을의 활력과 매력을 높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마을만들기 사업과 비슷하지만 책이라는 문화·인문적 자원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어음 1리는 인구의 공동화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마을을 문화·인문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어음책마을 만들기’의 방안을 고민하였다.

어음책마을 조성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내·외의 책마을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책마을 두 곳을 선정해서 그 운영자들과 책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터뷰의 진행과 함께 그 분석을 통한 어음책마을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음마을사람들의 책마을 만들기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어음책마을 조성을 위해 마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무형의 가치창출을 이룰 수 있는 마을의 설촌 이야기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였다. 이에 책마을의 테마를 <재회>로 정하고 그에 따른 3개의 콘셉트 즉 올레, 발담, 폭낭이라는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 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어느 분야에서든 감성을 움직이는 스토리와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감성의 시대, 이야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모든 것에 스토리를 입힘으로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책마을 스토리텔링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향후 이를 통해 어음 1리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마을의 지명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적 여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어음책마을 만들기는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방안과 프로젝트를 통한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제주에는 책마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관광하면 주로 자연(自然)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관광지 제주에 관광 테마의 다양성에의 기여는 물론 품격 있는 ‘인문의 공간’으로서 책마을이라는 자산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A Storytelling strategy for the AOUM book town development.

Kim, Hae-Sook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G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 way of making a Aoum Book Town that combines storytelling with one step further making book town as 'town development' which ignores the power of existing storytelling.

As a culture and human space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a cultural and attractive village mediated by books through the use of the Aoum that has been hollowed out because of young people's leaving town and aging with the decline of the elderly population, I first consider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own development for the idea of "town development".

In order to find out how to create a Aoum Book Town, I looked at and analyzed the cases of the book town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I selected two book towns which are currently being

operated in Korea and interviewed them about the general aspects of the book town.

For the purpose of this paper, I have examined the pres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the textbooks and, first of all, analyzed the perceptions of the book towns by the people who are important.

In the book collection, the story of village passed down to the villagers as a book town through storytelling, which is a powerful force that can create intangible value that can highlight the identity and symbolism of the village. Based on the theme of the village (reunion) was determined and three concepts (olle, battam, pongnang) were derived from the storytelling. The book town development through storytelling can be said to be differentiation in the draft book town development, and a concrete program proposal is suggested.

Recently, interest in quality of life has been gathered due to the new value change of 'well-being'. Quality of life is not improved by high level of income, welfare, and safety. If the opportunity to enjoy human leisure and abundant culture is not guaranteed, the quality of life can not be expected to improve.

Today, We have an age of emotions and stories, so that the importance of story and design that move emotion in any field is emphasized. I set up a book town storytelling strategy and planned various programs by focusing on the fact that I can have strong persuasiveness than anything else by putting everything into a story.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upgrade the brand value of the Aoum of loyalty so as to raise the brand recognition and to establish the intellectual leisure spac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ere are many ways and towns that have been developed through various projects and programs, but it is meaningful that there is no book town in Jeju yet. Especially, tourism will contribute to the diversity of tourist themes in Jeju, a tourist destination that

reminds us of the natural image, and will add the asset of Book
Town as a quality of 'humanity place'.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성장으로 사회의 다원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생활환경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또한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공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들이 표출되면서 1990년대부터 소위 ‘마을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보다 쾌적하고 부가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시켜 왔다.

그 결과 자신들만의 고유한 특색을 지니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다양한 색깔을 지닌 마을들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운동’이 주민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면서 ‘사업’으로서의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었다.

작금의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조선시대의 제주도는 원악의 유배지였으며 사재(水災, 火災, 風災, 旱災)의 섬에 불과했다. 유배의 섬, 사재의 섬이 현재 세계적인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만들기’는 대부분 관광과 접목시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까닭에 지역특성상 관광객 위주의 시설과 관광소득창출 목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 마을을 이루는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주어지기보다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주의 마을시스템이 가동되어 관광 수단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관광의 수단이 되고, 당장의 소득 창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가치를 제고(提高)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는 불가능한 것인가, 단순한 마을의 물리적 환경 개선만이 아니라 나아가 마을의 심리적 환경 개선은 불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 부응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 1 리의 마을만들기를 “책마을”이라는 주제로 디자인을 해보고자 하였다.

어음 1리 주민들의 평균나이는 75세의 고령이며 반농반어의 생활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제주 대부분의 마을들과는 달리 순수한 밭농사만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최근 애월읍을 비롯한 제주도 전역의 여러 마을들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많은 도시민들이 이주하여 카페를 만들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함으로써 마을의 색깔들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어음1리만은 예외적이다. 이 예외성은 마을이 그만큼 폐쇄되고, 정체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부적 요인보다는 독자적으로 마을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어음 1리의 고유성과 독자성은 오히려 다른 마을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가 가능한 요인이라는 점에 본 논문은 주목하여 “책마을”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된 현책방 마을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영국의 ‘헤이 온 와이’(Hay-on-Wye) 역시 Richard Booth라는 기획가가 처음 책마을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이런 마을에 책마을은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똥한 발상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이 문화가 되어 사라져가던 탄광마을을 매년 50만 명이 넘는 애서가, 고서수집가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모으는 세계 최대의 책마을이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어음책마을 만들기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어음 1리 마을 사람들은 애초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의지 여부와 책마을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 궁금하여 이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만약 마을만들기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책마을에 대해 필요 이상의 의문이나 반감을 표명할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어음에 책마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마을만들기에 대한 의욕이 매우 강하다는 것과 책마을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주 유일의 마을’로 제주다움과 어음다움이 살아있는 마을만들기로 어음책마을을 만들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통한 조성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 1리만을 한정하여 새로운 마을만들기의 모델로 책마을 만들기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하필 책마을인가 하는 질문 앞에 우선은 기존의 마을만들기와는 다른 마을과 마을사람들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리고 인문학적인 마을만들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책마을이라는 주제를 선정했다.

또한 도심을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는 인문의 인프라와 개인의 지식이나 교양을 쌓아가는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서점이 어음 주변에는 전혀 없다는 점과 일평생을 농사일에만 몸담아 온 마을사람들이 책으로 특성화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마을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어음 1리는 현재 일자리와 삶을 위해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이 마을을 지키고 있지만, 예전에는 초등학교를 통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이루어졌고 제주의 구석기 유물이 나온 빌레못 동굴과 4.3 역사의 현장이 주변에 있는 마을이다. 특히 설촌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제주 고유의 문화를 잘 반영해주는 올레, 밭담, 폭낭 등 비교적 옛 모습 그대로를 잘 간직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스토리텔링 되어 있지 않아 마을만들기로 요소로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책마을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 ‘어음책마을만들기’를 기획하였다.

본 연구는 과연 이러한 어음책마을이라는 주제 선정이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하면 제고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과 함께,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간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책마을은 책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소통의 공간 즉 책을 통한 상상력과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창조적인 공간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믿어지는바 이러한 취지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시켰다.

2) 연구방법

최근에는 스토리텔링을 키워드로 다양한 영역에서 스토리텔링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론과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은 온라인 콘텐츠와 오프라인 콘텐츠를 창작·기획하는 방법론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로 분류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와 영상콘텐츠에 역동적인 상호작용성이 작동할 수 있는 서사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 콘텐츠 영역인 박물관, 테마파크, 축제, 관광, 제품 디자인, 도시 공간 등을 스토리 중심의 콘텐츠를 기획하는 방법론으로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응용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도 오프라인 콘텐츠 영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에서는 마을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유통시키고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 장치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은 아주 오래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며 인간의 본능이다. ‘적절한 이야기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사실을 설명하게 되면, 이야기의 감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깊고 풍부한 의미 전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다.¹⁾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마을이야기를 기반으로 설득의 메시지를 분명히 정하고 사건을 극적으로 재구성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데, 어음의 대표적 이야기의 내용과 의미를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스토리로 변화시켜 그 스토리의 주제를 명확히 추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어음책마을이 무엇을 주제로 하는 책마을 만들기 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어음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함으로써 어음책마을의 대중적 전달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제를 확실히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공간 구성안과 프로그램 구성안을 드러냄으로써 책마을의 개발 방향과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1) 백승국 (2007), 게임콘텐츠 기획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법론 : 문화기호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p.27

Ⅱ. 이론적 배경

1. 마을만들기의 개념

1) 마을만들기의 정의

얼마 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마을만들기’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국적으로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등의 기치(旗幟)를 내걸고 추진해 오고 있다.

1970, 8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획일적이고 하향식의 관주도형 개발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장소 성을 재인식하고 보다 나은 물리적, 문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김찬호(1997)는 그의 저서에서 “마을만들기는 1962년 일본의 나고야 시(市) 에이도(榮東) 지구의 도시재개발 시민운동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으로써 도시계획에 주민이 참가하는 길을 열었다.”²⁾라고 소개하고 있다. 최근의 마을만들기는 1960년대와 비교하여 시대적·환경적 여건 및 기본원칙이 변화되었으므로 마을만들기의 개념이 변화한 것은 사실이다.

3) ‘마을만들기’라는 단어에서 사용하는 ‘만들기’는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연구와 실천을 거듭하면서 자라난다는 의미가 있다. 물리적이며 하드웨어적인 환경만이 아닌 사회적 환경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교육과 산업 및 전통적이며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오랜 시간동안 만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이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생활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도시를 형성해가는 일련의 “Think Globally, Act

2) 엔도 야스히로, 김찬호 옮김 (1997),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p.35

3) 강 훈 (2013), 마을 만들기를 위한 교회의 역할, p.19

Locally”의 실천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지역의 개성과 자주성 및 살기 좋은 지역의 창출, 주민 중심의 모토를 실현하기 위한 상향식 실천의 중요한 key word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을만들기의 정의를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의 마을만들기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가 연대 및 협력하여 주변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마을의 활력과 매력을 높여 생활의 질의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지속적인 활동이다. 이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 간에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주민들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에 비해 광의의 마을 만들기는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타 지역과의 교류와 협동에 의한 실천운동이며 미래의 도시 및 국가 성립의 기본적인 명제로 동이나 구까지 포함하는 공간적 개념과 공동체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⁴⁾

또한 안동규(2006)는 그의 저서 ‘마을창조’라는 책에서 마을만들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마을만들기는 관료적인 법률용어가 아니라 시민적인 용어로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 마을만들기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역을 시민 자신의 문제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체의식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마을이란, 사물 혹은 시설 등의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다양한 것이 있으나 좀 더 크고 전체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물이나 시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방법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며 마을을 어떻게 활기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하드웨어적인 면은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마을만들기는 도시나 지역이 주체성을 가지고 역사적 유산이나 전통의 문화 또는 개성 있는 풍토를 소중히 하여 자량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개성과 문화가 있는 마을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넷째,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인간 존중의 ‘살기 좋은 마을’, 즉 안전하고 서로 도와주고 고령자와 어린이가 안심하고 활기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4) 김선직 (2009), 마을 만들기의 전략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p.36

다섯째, 이질적이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개성이나 자유를 존중하면서 그 다른 점을 극복하여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와 조직을 만드는 것이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목적이다.

여섯째, 마을만들기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을을 사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시민이거나 혹은 공무원이어도 좋다. 이러한 사람들을 발견하여 육성시켜가는 것 또한 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하다. 또 주민 전체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지각하여 지역에 책임을 갖고 참가, 협동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육성시키는 것은 마을만들기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는 다른 말로 ‘인재 만들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마을만들기는 이념에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실천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적극적인 행동, 즉 시민의 실천적 행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마을만들기’는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보살피고 매만진다는 의미의 ‘가꾸기’와는 달리 자발성적인 참여, 즐거움과 만족 속에 스스로 자기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마을을 움직이는 조직이나 재정, 자치조직, 시민의식 등의 소프트웨어적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주민 스스로 지키고 가꾸며 만들어가는 적극적 참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활동이 ‘마을만들기’ 본질이라 할 수 있다.

2) 마을만들기의 원칙

그동안 여러 형태의 마을 만들기가 실시되어 왔고 여러 지역에서 결과물들이 나왔다. 마을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창조하는 활동인 마을만들기를 김선직은 그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들고 있다.⁵⁾

첫째, 공공복지의 원칙으로 주거환경이나 거리의 경관, 지역경제, 교육, 문화 등 지역사회 공공복지에 관한 사항을 유지 및 향상시켜 기본적인 생활과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조건을 정비하여 공공복지를 실현한다.

둘째, 지역성의 원칙으로 각각의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

5) 김선직 참조, pp.28~30

을 살려 지역 고유성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장소 문맥의 원칙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현재의 사회를 디자인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소의 문맥이란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행위가 각각의 장소에서 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마을의 사회와 공간을 유지하는 기본이라는 인식이다.

넷째, 다양한 주제에 의한 협동의 원칙으로 개인이나 각각의 조직이 자립하면서 서로가 보완 및 연대·협동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마을만들기 활동에서도, 다양한 주체가 연계하여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지속가능성 및 지역 내 순환의 원칙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목표로 일시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자연이나 재산, 인재가 지역에 머물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유지하면서 운영한다.

여섯째, 개인의 자기개발과 창조성의 원칙으로 주민과 마을만들기 관련단체의 개성과 특징을 발휘하면서 지역을 운영해가는 마을만들기를 말한다.

일곱째, 글로컬(Glocal)의 원칙으로 지역성에 입각하면서도 항상 지구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는 지역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광역적인 마을만들기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들이 지역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공동사회의 가치와 문제, 잠재력에 관한 통찰력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지역을 가꾸어 가려는 의지와 태도가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의 의견을 살피고 지역 주민간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3) 마을만들기의 현황 및 본질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지역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만들고 그에 결부된 공간을 디자인하는 과정이 마을만들기이다. 목정훈(2006)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마을만들기 발전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하면 첫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 모임 전개시기(1990~1994), 두 번째는 주민주도의 주거환경개선 운동 시작시기

(1995~1997),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지원의 다양한 시도시기(1998~2006)”⁶⁾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마을만들기는 국가균형 발전 위원회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마을주민이 주도하되 행정은 재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지역 소재의 컨설팅 업체, NGO단체 등이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는 주로 주민들 스스로 일상생활 환경의 문제를 풀거나 개선하는 활동이 주였다.

1990년대 전후 참여환경연대의 주도에 의한 ‘아파트 공동체 운동’, ‘아파트 시민학교’, 각 지역 YMCA가 주민들과 함께 전개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운동’, ‘마을학교 개최’, 녹색연합의 ‘생태마을학교’, ‘녹색아파트 만들기’, ‘녹색가게’, ‘민회(民會)’, ‘지역 만들기’, ‘생활협동공동체운동’, ‘마을 축제’ 등 다양한 활동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아름 마을 가꾸기 사업’,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⁷⁾,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어촌체험마을’⁸⁾, ‘자연생태우수마을’, ‘복원우수마을’⁹⁾, ‘전원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¹⁰⁾, ‘농촌 전통 테마마을’¹¹⁾, ‘가고 싶은 섬’, ‘문화 역사마을’¹²⁾, ‘휴양바다마을사업’¹³⁾ 등의 명칭으로 소프트웨어가 균형 잡힌 마을만들기와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개발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하게 마을만들기가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2011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도내 곳곳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보여준 제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던 대표적인 20개 마을을 표로 정리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⁴⁾

6) 목정훈 (2006), 서울시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 p.36

7) 행정안전부 주관

8) 국토해양부 주관

9) 환경부 주관

10) 농림부 주관

11) 농촌진흥청 주관

12)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13) 해양수산부 주관

14) 이성용 (2009),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pp.194~195

<표 1> 제주 마을만들기 현황

읍·면	마을 명	추진사업
제주시	영평동	정보화마을, 농촌건강장수마을
	명도암	농촌전통테마마을, 베스트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조천읍	선흘 2리	자연생태우수마을, 6차산업베스트
	교래리	아름마을가꾸기, 녹색농촌체험마을, 베스트마을
구좌읍	김녕리	정보화마을, 어촌종합개발사업, 6차산업베스트
성산읍	온평리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촌팜스테이, 자립형마을
	수산 1리	정보화마을,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자립형마을
	신평리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농촌전통테마마을, 팜스테이, 자립형 마을
애월읍	장전리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녹색농촌체험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베스트마을
한경면	관포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조수 1리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농촌건강장수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저지리	정보화마을, 살기좋은마을만들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 팜스테이, 자연생태우수마을
	낙천리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베스트마을
서귀포시	예래동	정보화마을,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녹색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
남원읍	위미 1리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어촌체험, 자립형마을
	신흥 2리	농촌건강장수마을, 6차산업베스트, 자립형마을

안덕면	대평리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농촌종합개발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6차산업베스트, 자립형마을
대정읍	신도 1리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자립형마을
	가파리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어촌종합개발사업, 자립형마을
	무릉 2리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농촌종합개발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6차산업베스트, 자립형마을

앞의 표에서 보듯 제주특별자치도의 많은 마을들이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지금까지 제주에서 책을 주제로 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했던 마을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이 책마을이 부재하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로 판단된다.

첫째, 그 동안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치우친 면도 있지만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주어지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있으며,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또 그에 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위의 표에서 보듯 그동안 이루어졌던 ‘마을만들기’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지역 및 개인에게 소득이 창출되느냐? 아니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 ‘마을만들기 성공프로젝트를 위한 선진 우수마을 탐방’을 하면서도 탐방지의 선정 기준 역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소득이 창출되고 있느냐가 탐방지의 선정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였다.

셋째, 제주가 관광지라는 지역특성상 관광객의 만족, 편의, 즐기기 등의 볼거리위주의 시설과 관광소득창출 목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관광객의 구미에 맞고 소득과 연결되는 ‘관광 상품 만들기’로 마을을 이루는 지역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주어지기보다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주의 마을 시스템이 가동되어 ‘마을만들기’보다는 관광 수단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의 주관 부서가 대부분 농림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로 이들은 주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줄이기가 주목적이거나 낙후되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이 쇠락해가는 농촌을 되살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 문

화관광부가 주관이 된 ‘문화 역사마을’의 경우에도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을 활용하여 지역이나 개인의 소득에 비중을 두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인간존중과 삶의 가치를 등한시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진행해왔던 ‘마을만들기’를 넘어선 새로운 방향과 그 차원을 높이는 마을 만들기로써 제주에서 최초로 책으로 특화된 ‘마을만들기’로서 책마을을 제안한다.

지금까지는 지역 어메니티 특성을 고려한 ‘마을만들기’ 또는 ‘책마을만들기’ 방안에 대한 연구와 사업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마을의 정주환경과 삶의 문화를 잃어버린 도시문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반성에서 출발한 도시문화 활성화, 그리고 황폐화되어가는 농촌지역 어메니티¹⁵⁾ 자원의 활용방안 및 그를 통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되어왔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의 실태 조사와 발굴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지역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부가가치의 생산에만 초미의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행정기관의 재정적 지원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내어야하는 한계점으로 인해 성과위주의 사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결과 사업을 시작해서 정부의 지원이 끈기는 시점을 중심으로 차츰 마을만들기의 본질에서 멀어져 갔다. 즉 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한 요소인 공동체를 회복시켜 삶의 질을 높여야하는 본질에서는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2. 책마을 만들기의 의미

김언호(2008)는 그의 연구에서 “책마을이란 책과 문화·예술이 접목되어 책의 판매, 전시, 책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주로 하는 ‘책으로 특화된 마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책마을이란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그런 성격을 넘어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책을 매개로하는 프로그램으로 상호 소통하는 문화 예술의 토털 스페이스인 것이다.”라고 책마을을 정의하였다.¹⁶⁾

1961년 영국 헤이 온 와이(Hay-On-Wye)에 최초의 책마을을 시작한 이래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책마을 만들기’ 운동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색 있는 지방문화의 자리매김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이며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

15) 인간이 생태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매력·쾌적함·즐거움이나 이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함.

16) 김언호 (2008), 『헤이리 꿈꾸는 풍경』, p.140

지하고 동참하는 사회운동으로 책마을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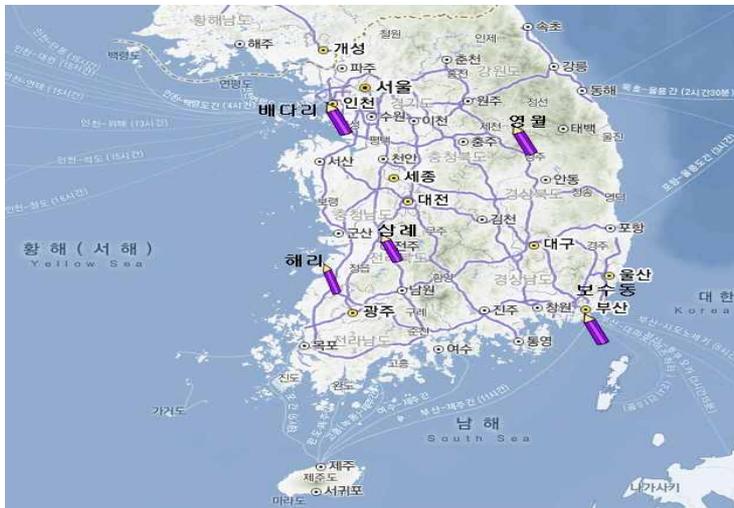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글, 그림 등으로 표현한 문화적 바탕의 핵심인 책의 보급자이자 파수꾼으로서 서적상의 의지와 마을을 지키고자하는 지역민의 애향심과 책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마을 공동체가 생겨나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대형서점이나 도서관과 같은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던진, 인간의 따스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장터 같은 곳, 우리 이웃 같은 곳, 작은 동네 찻집이나 놀이터 같은 곳, 풀밭과 나무그늘 밑에서 책을 만나는 전원마을로 책방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서점이나 출판사는 물론이고 은퇴한 노년이나 청년, 농민이 어울려 마을을 변화시킨다.

책마을만들기는 인간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실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마을이 스토리텔링 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문화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람을 발굴 육성하여 장기지속적인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책이고 책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책마을이며, 또 다른 마을만들기의 대안으로서 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Ⅲ. 국내외 책마을 사례 및 국내 책마을 탐방

1. 국내외 책마을 사례

1) 국내 사례



<그림 1> 국내 책마을 위치

(1)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

1950년 6.25사변 이후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었을 때 이북에서 피난 온 손정린씨 부부[구, 보문서점]가 사거리 입구[현재 글방쉼터] 골목 안 목조건물 처마 밑에서 박스를 깔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헌잡지, 만화, 고물상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헌책 등으로 노점을 시작한 것이 지금의 보수동 책방 골목이 되었다.

6.25 전쟁이후 부산으로 피난 온 많은 난민들은 주로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국제시장 일원]등에서 정착하여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또한 부산소재 학교는 물론이고 피난 온 학교까지 구덕산 자락 보수동 뒷산 등에서 노천교실 천막교실

로 많은 학교가 수업을 하였던 관계로 보수동 골목길은 수많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붐비게 되었다. 당시 사회는 너무 어려워 서적의 출판문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여 수많은 학생과 지식인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책을 구입하기가 참으로 어려워 헌책이라도 구입할 수 있으면 감지덕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점 헌책방은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 성황을 이루었고 차츰 다른 피난민들이 가세하여 점차적으로 하나 둘 노점과 가건물이 늘어나 책방골목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보수동 책방 골목은 근래에 와서는 경제발전으로 새 책의 수요도 대폭 늘게 되어 새 책방도 많이 들어서 각종 양서를 구비하여 싸게 공급이 하면서 많은 서민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명실공히 헌책 새 책이 같이 어우러진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문화의 골목 책방골목으로 자리 잡혀 부산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보수동 책방골목축제를 열어 도서무료교환, 고서 전시회, 불우이웃돕기 등 행사를 거쳐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2005년부터는 보수동 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다.¹⁷⁾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은 그 시작이 순수한 생계를 위해 오랜 시간 헌책을 팔면서 자연스럽게 조성되어진 경우로 이곳에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보수동 문화축제’는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자구책이다. 어음책마을에서도 마을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어야한다.

(2) 파주 출판 도시와 헤이리마을

1980년대 후반 출판의 미래를 고민하던 출판인들이 ‘출판도시산업단지’를 건설하자는 데 뜻을 모은 지 20여년 만에 경기도 파주시 문발리를 중심으로 총면적 156만 1천㎡(47만2천1백 평)의 부지를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 중이다.

민간이 주도해 설립한 국내 유일의 산업단지인 파주출판도시의 정식 명칭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다. 이곳에는 현재 국내 유수의 출판사, 인쇄소, 제본사, 저작권 중개사, 출판유통센터, 디자인 회사 등 300여 개의 출판관련업체가 입주하여 양질의 출판을 위한 활발한 협업을 이뤄내고 있다.

파주 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 실현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및 국제적 수준의 복합문화연구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운영을 담당할 재단법인 출판

17) 부산보수동책방골목 홈페이지, 보수동역사, <http://www.bosubook.com/bosu/img> 2017,1,5.

도시문화재단이 2003년 12월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¹⁸⁾

문화와 예술의 창작, 전시, 공연, 축제, 교육이 모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적인 예술문화 마을인 헤이리 마을은 1994년부터 구상해 1998년 창립총회 때 미술가, 음악가, 작가, 건축가, 영화인 등 38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수많은 갤러리,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소극장, 카페, 레스토랑, 서점, 게스트하우스, 아트 스톱과 예술인들의 창작·주거공간이 있는 곳이다. 1997년 파주 출판도시와 연계한 '책마을'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야의 문화 예술인들이 참여하면서 '문화예술마을'로 개념이 확장되었다.

파주 출판도시는 책의 출판과 관련된 기업이나 개인이 입주해 운영되고 있는 책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마을이며, 헤이리마을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담론과 창작활동을 위한 예술인들의 공동체로 본 연구에서 이 루고자하는 책마을과는 거리가 있다.

(3) 영월 책 박물관

1999년 4월 강원도 영월군 서면 광전리에 국내 최초로 연 책박물관이다. 36년간 400여명의 동문을 배출한 여춘 분교의 학생 수가 줄어 문을 닫아 1998년 폐교하자 국내 대표 고서전문가인 “호산방” 주인 박대현씨가 개관하였다.

교실 두 칸에 2개의 전시실을 마련해 희귀고서적들을 전시하고 호산방 서적들도 옮겨와 고서적과 전문서적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제1전시실에는 1922년 발간된 「황야에서」, 1941년 판 김동인의 「왕부의 낙조」 등 근대초창기 희귀도서 100점을 전시하였다. 제2전시실에는 목판본 「동몽선습」, 윤석중의 동요집 「초생달」을 비롯하여 조선시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어린이교과서와 동화 동시집, 만화 잡지 등 100여 점이 전시돼 고전의 향기를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나 현재는 폐관 상태이다.

영월책박물관이 어떤 이유에서 폐관되었는지의 속사정을 알 수 는 없지만 이곳은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책마을이 아니라 단순한 책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기능을 가진 박물관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

18) 출판도시문화재단 홈페이지, 자료실, <http://pajubookcity.org/Main/Main>, 2017,1,8.

(4) 인천 배다리 마을

배다리 헌책방 거리는 지난 60~70년대 배움에 목말라 했던 이들이 학문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었던 인천지역의 유일한 헌책방 골목이다. 이 골목은 경인선 철로가 놓이기 전 인천의 대표적인 서울로 가는 통로였다.

배다리 헌책방에서는 국문학 고서부터 미술, 음악, 한방 등까지 모든 서적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배다리 헌책방 골목 입구에 들어서면 배다리 사람들의 옛 모습과 생활상을 그려 넣은 배다리 벽화 거리를 만날 수 있다¹⁹⁾.

인천 배다리 헌책방 골목은 1960~70년대에는 400여개의 책방(서점)들이 있었고 헌책을 구입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바빴던 곳이었었는데 현재는 7개의 서점만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50년간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1960년대 초에는 하루 매출이 한 달 봉급만큼 책이 많이 팔리는 호황기가 있었다고 한다.

배다리 헌책방 골목이 자리한 곳은 매우 조용한 도심 공간으로 어떤 헌책방에서는 시낭송회를 주최하기도 한다. ‘스페이스 비’라는 공간은 헌책방 골목의 서점들과 연계하여 마을의 문화교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들을 위한 개인 작업 공간 및 전시회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인천 배다리 헌책방 골목은 단순히 헌책방으로써의 역할이 아닌 또 다른 문화 창조까지 함께 하고 있다.

인천배다리골목은 7개의 헌책방으로 명맥만 유지해오다가 최근 인천시에서 역사문화마을만들기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또 TV 드라마의 촬영무대로 활용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에서 역사라는 이야기가 부가됨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인간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인문적 가치와 삶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표 2> 국내 책마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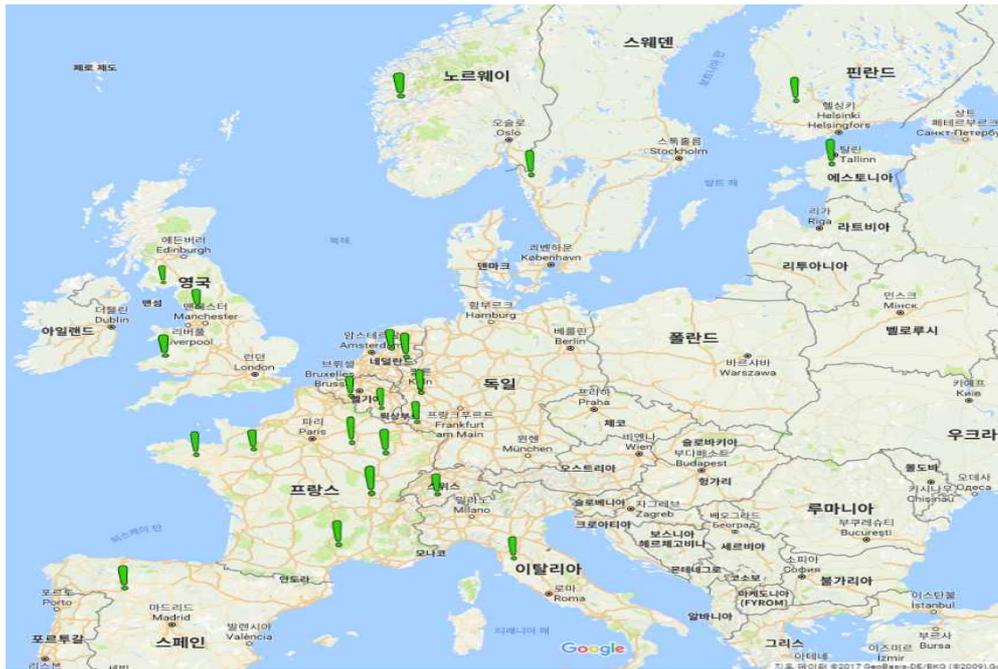
지 역	책마을	특 징
-----	-----	-----

19)인천동구청홈페이지, 거리관광.

http://www.icdonggu.go.kr/open_content/culture/street/bookstore.jsp, 2017,1,12.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	1950년 이래 작은 책방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대형서점 같은 헌책방 골목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	출판사, 인쇄사, 디자인사, 저작권 중계사 등 관련기업들이 입주해, 그 운영을 위해 '출판도시 문화재단'이 설립됐다
	파주 헤이리 마을	문화와 예술의 창작, 전시, 공연, 축제, 교육이 모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적인 예술문화 마을
강원도	영월 책 박물관	국내 첫 책 박물관으로 2006년부터 휴관 후 현재 폐관 상태
인천	인천 배다리 마을	한 때 40 여 곳이 넘는 책방이 있었던 곳으로 최근 TV드라마 '도깨비' 촬영장으로 유명해짐

2) 국외 사례 20)



<그림 2> 유럽의 책마을 위치

(1) 영국, 헤이 온 와이(Wales, Hay-On-Wye)

세계 최초의 책마을로 알려져 있는 헤이 온 와이는 영국 웨일스 지방에 자리 잡은 인구 1,300명의 작은 마을이다. 반경 200m 안에 25개의 전문서점을 비롯한 모두 40여개의 특색 있는 서점들이 늘어서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서적마을이다. 사라져가는 탄광촌이었던 헤이 온 와이(Hay-On-Wye)가 책마을로 변한 것은 1960년대 초 옥스퍼드대학 졸업생 리처드 부스(Booth, Richard)에 의해서 이다. 그는 “서점으로 가득 찬 도시야말로 국제적인 매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책들을 수집 판매하기 위한 ‘시네마 북숍’이란 책방을 열어 전문서점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의 성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잇따라 이곳에 와 소규모의 전문서점들을 열면서 책의 소왕국을 만들었다. 마을 곳곳에는 야외책방이 있으며 손님 각자가 책을 고른 뒤 책값을 요금함에 넣고 가져갈 수 있는 무인서점들도 있다. 책방들 사이로는 식당, 식품점, 호텔, 골동품 가게 등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문화적으로 특색 있고 책을 주제로 한 관광 촌의 전형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1988년부터 해마다 5월말에서 6월초에 걸쳐 2주 동안 헤이축제(Hay Festival)가 열린다. 이 책축제에서는 토론회, 영화, 시낭송, 음악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서 책 애호가는 물론이고 이색적인 볼거리를 즐기는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다.

(2) 잉글랜드, 세드버그(England, Cumbria, Sedbergh)

잉글랜드 컴브리아 지방에 있는 책마을로 옛날 로마군이 쳐들어 왔을 때 세운 하드리아누스 장벽이나 호수공원이 있는 이곳을 북타운으로 만든 주동자는 에릭 롱슨이다. 방송인으로 30년 넘게 활동해온 그는 이 동네사람답게 건기의 달인으로서 책을 여러 권 펴낸 작가이다. 롱슨은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 책마을이 있는데 잉글랜드에 없어서 말이 되겠느냐며 애항심을 부추겼다. 세드버그는 국립공원 외에도 이 두 책마을을 잇는 징검다리로서 이점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주민을 설득했다. 게다가

20) 국외 사례 중 유럽지역은 (정진국, 2014, 「유럽 책마을에서」, 생각의 나무.) 참조.

가 요크셔 데일즈와 컴브리아 역내 도시와 마을마다 전문화된 고서적상도 포진하고 있다. 고서적 전문의 <카알라일>, 지역사 전문의 <커크비스티븐>, 음악 전문 <케달>, 16세기 농가를 개조한 동물 전문서점이나 오직 절판된 책자만 취급하는 체셔(cheshire) 등지 40여 서점이 있다. 세드버그(Sedbergh)는 골짜기 길을 따라 수천 년 전부터 터를 잡고 두 지방을 이어온 가촌(街村)이다. 애당초 주민의 의견은 둘로 갈라졌다. 사실 ‘북타운 동호회’는 외지 사람이 상당수였다. 마을 장로들은 지금까지 대영제국이 전 세계로 물고 다닌 변화의 바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그저 조용히 살고 싶어 했다. 이렇게 ‘잉글랜드 북타운’이 된지는 이제 햇수로 3년째이다.

(3) 프랑스, 베슈렐(Becherel)

브르타뉴 지방의 베슈렐은 프랑스 최초의 책마을이다. 책마을이 만들어지기 전 몇 십 년 동안 몰락일로에 있었던 인구가 고작 600명에 지나지 않았던 한적한 시골 마을이지만 지금은 서점이 13개나 들어서 있고 매주 주말과 부활절에는 유럽 각국에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문화마을로 변했다. 1985년 한 정신과 의사가 옛 나막신 공방 건물을 사들여 문화센터를 겸한 카페를 열면서 시작되었다. 서점하나 없던 마을에서 ‘책의 축제’를 열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6천명이 모여드는 대성공을 거두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서점을 열었고, 고서적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 둘 모여들었다. 이곳에서는 ‘책 낭송 축제’와 매달 정기 시장이 열린다.

(4) 스위스, 생피에르 드 클라주(Saint Pierre de Clages)

발레의 절벽 꼭대기에 만년설을 제외하고 사방이 밭으로 산머루와 포도를 주로 재배하는 마을이다. 계절마다 펼치는 문인의 강연과 낭송, ‘사인’회 외에도 미술 및 자료 전시회, 영화 상영 등으로 다채롭다.

여름의 끝 무렵이면 전 유럽의 고서적상과 출판전문가를 위한 축제가 벌어진다. 평균 120여 서적상이 희귀본을 들고 모여든다. 축제와 별도로 주제별 서적전시회도

마련하는데 책마을이 순항하는 이유를 마을 주민이 중심이라는 것을 들고 있다.

(5) 독일, 뵘스도르프(WÜnsdorf)

1945년 독일국방군이 패망하던 4월의 그날까지 사령부 지휘소였던 이 숲 속 병커는 브란덴부르크의 책마을로 변신했다. 병커와 군사박물관과 함께 ‘과거 속으로의 산책’을 즐기는 공원으로 알려졌다. 전쟁 관련 서적은 나라, 시대, 장르별로 분리되어 있는데 끝이 없다. 이곳을 찾는 박물관 전시기획자, 또 영화 제작에 필요한 사진 등 자료를 수배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아주 잦다.

(6) 일본, 키조(木城)마을

일본의 남쪽 끝 큐슈지역의 미야자키현에 위치한 키조(木城)마을에 ‘숲속의 그림책관’을 중심으로 ‘숲속의 나무꾼관’, ‘숲속의 작은 집’, ‘숲 옷의 그림연극 오두막’ 등의 시설로 이루어진 ‘키조 그림책 마을’이 완성되어 1996년 4월 개관되었다. 원래 마을은 약 80%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깊은 산골마을이었다. 매년 젊은이들은 도시를 찾아 떠나고 노인들만 남게 되자 마을은 점점 쇠락의 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에 키조정청과 주민들은 마을을 다시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중 이곳 출신인 ‘쿠로키 이쿠토모’ 씨가 그림책마을을 만들자는 제안으로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쿠로키 이쿠토모는 그림책 마을을 조성할 당시 3가지 원칙을 정했다. “자연을 지킨다.”, “그림책 도서관이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자연의 체험, 책을 읽는 것보다 자연을 느끼고 시간을 즐기게 하는 곳 이어야한다.”이다.

<표 3> 국가별 책마을 특징

국 가	지 역	책마을	특 징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헤이온 와이	책을 주제로 한 탄광촌의 전형

	컴브리아	세드버그	이웃마을과 연계 북타운 동호회원, 연극, 미술, 음악의 퍼포먼스.
프랑스	보르타뉴	베슈렐	프랑스 최초의 책 마을. 매달 열리는 정기 시장. 책 낭송 축제.
벨기에	룩셈부르크	레뒤	매년 8월 첫째 토요일마다 모든 책방이 밤새 문을 열고 한바탕 잔치를 벌인다. 식당과 호텔 겸하는 전통 숙소.
스위스	발레	생피에르 드 클라주	축제와 별도로 주제가 있는 서적 전시회
독일	브란덴부르크	뵘스도르프	독일군 지휘소 병커이용. 전쟁관련 서적. 나라, 시대, 장르별 분리. 과거 속으로의 산책을 즐기는 공원
일본	미야자키현	키조	마을살리기의 일환으로 그림책마을 조성

3) 사례분석을 통한 어음책마을의 방향성 고찰

유럽에는 각 지역마다의 특색을 지닌 책마을들이 만들어져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이색적인 관광을 즐기거나 책을 테마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의 책마을 사례에서 제주형 책마을만들기로서 어음책마을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특징 있는 책마을 6곳을 살펴보았다.

세계 최초의 책마을인 헤이 온 와이(Hay-On-Wye)가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서적마을로 존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은 소규모의 전문서점들이 잇따라 열리면 서이다. 탄광촌을 책의 소왕국으로 만드는 데는 처음 시작하는 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호응과 실천이 마을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이다. 제주의 모든 헌책은 어음책마을로 모여들어 이곳에서 사고파는 것은 기본으로 다양한 기능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스토리텔링 되어야 한다.

고서적전문, 지역사전문, 음악전문, 동물전문서점, 오직 절판된 책자만 취급하는 서점 등 40여 서점이 포진되어 있는 잉글랜드, 세드버그(England, Cumbria, Sedbergh)의 경우처럼 어음책마을은 세상의 모든 헌책방이 존재하는 것과 더불어 특화된 전문 서적상들이 상시 운영되어 이를 필요로 하는 방문객들에게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1985년 한 정신과의사가 옛 나막신 공방 건물을 사들여 문화센터를 겸한 카페를 열면서 시작된 곳이 프랑스 최초의 책마을인 베슈렐(Becherel)이다. 단지 책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책마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책이 주가 되기는 하지만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안한 여유를 책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인문의 공간이 되어야한다. 요즘은 우리나라의 유명서점들도 무한 변신을 통한 독서 인구를 늘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듯이 어음책마을 역시 그림의 쉼터 공간으로서 기능을 다하는 어음책마을이 구상되어야 한다.

프랑스에서 치르는 책의 축제를 어음책마을에서는 ‘책마을 데이’로 정해 이날만이라도 책 선물을 통한 감사에 대한 빛 값는 날로 책마을의 홍보와 활성화를 기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스위스, 생피에르 드 클라주(Saint Pierre de Clages)에서는 계절마다 문인의 강연과 낭송, 미술 및 자료전시회, 영화상영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그 운영의 주체가 마을주민들이라는 점은 어음책마을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할 요소 중 하나이다.

독일의 뵘스도르프(Wünsdorf)에서 행하는 과거 속으로의 산책을 즐기는 공원은 어음의 지형적 특성과 민속·문화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재탄생되어야한다.

매년 젊은이들은 도심을 찾아 떠나고 노인들만 남게 되자 마을은 점점 쇠락의 일로를 걷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마을을 다시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일본의 키조(木城)그림책마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인 경우나 일본의 경우에 만들어진 책마을들은 단순히 책으로 특화된 마을만들기로서의 책마을들로 모두가 마을만들기에서 스토리텔링 전략이 없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마을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책마을만들기를 진행하게 된 동기로 작용하였다.

- 장 소 : 전북 고창군 해리면 월봉성산길 88(전 해리초교 나성분교)
- 일 시 : 2017년 3월 28일 오후 3시

① 해리책마을은 어떻게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나요?

- 책마을의 전신인 나성초등학교 설립에 저의 조부가 큰 기여를 했고, 2001년 폐교가 되자 폐교를 인수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향의 가치를 높일까 고민하던 끝에 2012년부터 지금의 책마을로 가꾸어 왔습니다.

② 해리책마을의 차별성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 해리책마을은 크게 고창어린이 책박물관(전시관+자료관), 버들논 도서관, 이야기학교 나성(책과 이야기의 학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버들논 작은 도서관이나 자료관과 같이 ‘책 만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 책이 12만권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지 책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책마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곳 고창 해리 책마을에서는 누구나 책을 만드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차별화된 해리책마을 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③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해리에서는 책마을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또는 1박 2일 동안의 캠프를 통해 취재되고 수집된 내용은 모두 책으로 출판됩니다. 2013년 문을 열어 해마다 2,000~3,000명의 사람들이 다녀갔으며 그 사이 펴낸 책은 60권이 넘었죠. 이곳에서는 누구나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누구나 책 한 권을 펴내는 저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④ 방문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소개 부탁드립니다.

- 최근에 만들어진 누리책공방은 아름답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

고 사진을 골라내는 일부터, 토론과 강의 심지어 잠자리까지 제공하는 공간을 만들었고 계속 공사 중입니다.

⑤ 그 외에 소개해 주고 싶은 프로그램은 없나요?

- ‘누구나 책 누구나 도서관’의 ‘한지활자공방’에서는 종이의 역사와 종류, 쓰임새, 우리 종이 한지 등 종이이야기를 시작으로 활자와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했고요, 실제 운전기를 움직여 인쇄는 물론 책을 만드는 전 과정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에는 해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목요일저녁에 여는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교실 “밭 매다 딴 짓거리”는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엉이와 보름달 작은 축제”, “책마을 책학교(책마을 출판 캠프, 청소년 동학캠프, 그림책워크숍, 편집디자인 스쿨, 어린이 책학교, 어린이 시인학교, 청소년만화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⑥ 누구나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누구나 책 한 권을 펴내는 저자가 될 수 있도록 책만들기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책의 경제학으로 소비로서의 책이 책 읽기라면 생산으로서의 책은 책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리는 읽기, 하기, 쓰기, 펴내기라는 4가지 행동이 받치고 있는 책마을입니다.

⑦ 책마을 해리에서 그동안 펴낸 출판물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 ‘마을신문 해리’, ‘책마을이야기(고창 책 읽는 소리, 버들눈 책방, 책책책이야기, 책마을 농사 일기, 책마을 수요 인문모임, 마주 이야기)’, ‘고창을 이야기하다’등의 출판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4> 운전기



<그림 5> 해리책마을 활자판

(2) 완주 삼례 책마을

삼례책마을은 완주군 삼례읍에 책박물관과 책공방이 있는 ‘삼례문화예술촌’에 옛 창고를 고쳐 책문화공간인 책마을을 조성했다. 완주 삼례책마을은 1999년 영월에 책박물관을 만들었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2006년 휴관했던 영월책박물관이 2013년 완주에 새로 문을 열었다. 공식적인 이름은 ‘삼례책마을 센터’이다. 북하우스를 중심으로 고서점(호산방)과 헌책방이 들어서 있다.

삼례책마을은 가까이 고풍스런 ‘삼례성당’이 담장이 없이 연결되어 있고 주변에는 초중고의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막사발 미술관등과 삼례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서 접근성과 지역 인프라가 상당 수준 조성되어 있다.

책마을센터는 전북 완주군이 책을 테마로 한 문화예술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삼례 문화예술촌 삼례시장~비비정마을을 연결해 조성하는 중이다. 책박물관, 책공방북아트센터, 문화카페, 종합세미나실, 비주얼미디어아트미술관, 디자인뮤지엄, 김상림목공소, 책박물관, 다목적체험관등이 있는 복합문화예술센터이다.

삼례에 책박물관을 중심으로 책마을을 조성해 운영하고 계시는 박대현 책마을 박물관장님을 만나 책마을 조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장 소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68, 삼례북하우스
- 일 시 : 2017년 3월 29일 오전 9시

① 책마을 구성에 관한 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책마을을 기획하시겠다는 말씀에 저는 먼저 우려가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화되어가는 농촌마을을 문화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듯하지만 제 생각을 말하라고 하면 해당 마을을 위해서는 안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마을을 망가뜨리는 일로 진정한 문화마을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마저 뿌리째 뽑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겉연쩍은 웃음)

② 그렇다면 책마을 구성을 어떻게 접근해야할까요?

- 책마을은 책을 테마로 하므로 당연히 책이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어떤 책이랴야 하는가? 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서점의 대표로 교보문고 같은 서점에 있는 헌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보문고에 없는 가치 있는 헌책으로 그 존재의 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면, 40~50년 전의 책으로 교보에 있었던 좋은 책을 말합니다.

③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책마을의 조건으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습니까?

- 우선은 문화적으로 완전 무장된 전문가가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서를 알아야합니다. 그리고 책박물관이 있어야합니다. 그 표적을 전문학자로 해서 전문연구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박물관과 전시회가 열리는 책마을이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층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책박물관을 먼저 만들고 차츰 다른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④ 우려하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 마을 사업들 대부분이 현재 행정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가 빠졌을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⑤ 삼례 책마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 ‘삼례는 책이다’라는 이름으로 2016년 8월 29일 삼례책마을이 개관된 이래 특별한 테마로 총 6번의 기획전시를 열었고 고서대학은 정기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북하우스(헌책방, 북카페), 한국학 아카이브센터, 북갤러리, 삼례책마을센터(주민문화공간)가 조성되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고서적 10만권 이상을 비치하고 북카페를 조성해 지역동아리 모임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데, 지역주민과 관광객, 전문가, 학생이 서로 소통하는 책 문화 허브공간입니다. 한국학 아카이브센터는 한국학연구센터와 고서, 신문, 전단지, 포스터 등 DB 구축과 한국학 자료 열람 등이 가능하고요. 또 주민문화공간의 경우 지역동아리공연과 북 베품시장, 북페스티벌, 북페어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공연, 세미나, 포럼, 교육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림 6> 삼례 북하우스

2) 탐방 책마을 분석

우리나라에 책과 관련되어 특화된 시(市) 또는 마을로는 파주시 관할 구역에 2곳(파주출판도시, 파주 헤이리마을), 현책방 마을 2곳(부산 보수동 책방골목, 인천 배다리마을), 전라북도에 2곳(고창 해리책마을, 완주 삼례책마을)이 있다. 헤이리마을의 경우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든 예이다. 이들은 책을 테마로 이루어진 마을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조성하고자하는 ‘마을만들기’로서의 책마을과는 거리가 있다.

본격적인 마을만들기의 성격을 가진 책마을은 고창 해리와 완주 삼례 2곳이라고 할 수 있다. 고창해리가 개인의 순수한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책마을이라면, 완주 삼례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및 기존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뜻있는 전문가의 기획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해리의 경우 학교가 폐교된 낙후한 농촌마을에 직업을 위해 잠시 떠났던 귀향민의 의지에 의해 책마을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 어르신들과 공유되고 있는 해리책마을은 제주형 지식기반마을로의 변신을 꾀할 어음책마을의 모델이기도 하다.

12만권이라는 소장된 책의 규모보다도 책마을 안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책마을캠프”,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교실인 “밭 매다 탄짓거리”, 누구나 글을 쓰고 누구나 책 한 권을 펴내는 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책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로서의 어음책마을구상에도 매우 필요한 활동이다.

상대적으로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문가의 만남으로 만들어진 삼례책마을은 북카페가 달린 현책방과 전문갤러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문화공간인 책마을 센터가 있어 공연 세미나 교육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징들을 잘 살려 어음책마을에서는 제주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책마을 사례에서는 마을 하나를 선정한 다음 해당 마을내의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 많은 현책 및 고서들을 비치해 놓고 몇몇 주제의 전시실을 갖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스토리텔링의 힘을 간과한 책마을만들기로 마을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마을만들기이다. 즉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주변 인프라, 공간구성 등은 전문가들에 의해 잘 기획되어있지만 마을 스토리텔링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는 감성의 시대, 이야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어느 분야에서든 점점 감성을 움직이는 스토리와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모든 것에 스토리를 입힘으로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마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무형의 가치창출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인 스토리텔링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또한 질적 문화향유의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풍부한 프로그램이 뒷받침 되는 마을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음에서 이루고자하는 책마을은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테마의 선정과 콘셉트의 도출을 통한 마을스토리텔링이 마을 만들기의 중심 요소로서 어음책마을 만들기의 기본 아이템이다.

IV. 어음책마을 만들기 기본 구상

1. 어음 1리 현황 및 특성

1) 어음 1리 마을 현황²²⁾

(1) 위치 & 면적



<그림 7> 어음 위치

어음 1리는 애월읍 중부 내륙에 위치한 농촌마을로 읍 소재지인 애월읍에서 서남쪽으로 4km 떨어진 해발 130고지에 위치한 자연 마을이다. 동쪽(동내)과 서쪽(정자내)에 마을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다. 서쪽 정자내를 건너면 봉성리(鳳城里) 마을이 있고, 북쪽에는 납읍리(納邑里) 마을이 있으며, 남쪽에는 어음 2리(於音2里)가 있다.

<표 4> 어음 1리 면적

단위(km²)

총 면적	전	답	과수원	임야	기타
13.05	2.95	0.00	0.10	5.39	4.61

22)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마을소개, www.jeu.go.kr, 2017,2,27

(2) 인구 & 역사

<표 5> 어음 1리 인구현황

(2014.12.31.현재)

세대수	인구수(명)		
	계	남	여
102	213	117	96

정자촌(正子村)의 설촌 113년 후인 1616년 조선 광해군 당시 강 씨 선조가 정착하였고 그 후 안씨, 양 씨, 김 씨 등의 선조가 정착하였으며 촌명을 어음비리(於音非理)라 칭하였는데, 어음비리란 국가에서 조세를 감면코자 리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아니비(非)자를 썼다는 설과 파선국 지형인 바 고기 잡는 어부의 배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옹비래(於翁非來)라 칭하였다는 설도 있다. 그 후 발음하기 편의상 '어음비' 또는 '어름비'라 불리어져 온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대에 어음 1리는 문 씨, 김 씨, 선조 등이 정착하여 리명을 부면리(夫面里) 속칭 '비면리'라 하며 촌락을 이룬 것이 현재 어음 1리(於音1里)이다.



<그림 8> 어음 1리 위치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문 씨 할아버지와 송 씨 할머니가 맨 처음 이 마을에 정착하여 설촌하였다고 한다. 그 곳이 한동(寒洞)거리라는 곳이고 집은 변방우영에 지어 살았다고 한다. 땅 형국(地勢)으로 보아 과원(果園)동산으로 능선이 뻗쳐 북풍을 막아주고 앞에는 어음봉을 마주하여 사람이 살기에 아늑한 곳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모여 가구가 차차 늘고 마을이 형성되었다.

처음 설촌한 문 씨는 부부갈등으로 가출을 해 버렸고 홀로 남은 송 씨 부인은 날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자 한에 맺혀 세상을 떠났다. 평생소원은 남편의 얼굴을 한번만이라도 보고 죽는 것이 애절한 소망이었다

고 한다. 이래서 부면이(夫面伊)란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 한다. 그 후 가구가 점점 늘어 성씨로는 김해김씨 집성촌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의 성씨도 많이 입주되면서 1930년대에 180가구에 이르렀다.

1948년에 4·3사건으로 인하여 전가구가 인근 해변마을로 소개(疏開)되었다가 1949년에 재건하여 현재 96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이다. 애월읍 26개의 마을 가운데 두 번째로 작으며 마을 주변에 바리메오름과 다래오름이 있다. 바리메오름에서 영함사라는 암자까지 약 2km의 울창한 삼나무 숲길이 있다.

2) 마을 특성

(1) 주요업체 & 마을사업

제주특별자치도의 홈페이지 상에 나타난 어음 1리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요 업체와 마을에서 시행되었던 사업을 <표 6> 과 <표 7>로 정리하였다.

<표 6> 어음 1리 주요업체

업종	형 태
제조업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주) (도치돌길 26) - 두부
	영농조합법인 탐라유통 (천덕로 440-24) - 돈육, 돈육가공품
	제주축산업협동조합공판장 (해암이길 215) -소돼지도축, 부산물, 부분육
서비스업	도치돌가든 (어음리 2472-1)
	어사촌도야지 (어음리 2473-4)
	장촌한우마을 (어음리 2473-1)

<표 7> 어음 1리 2015년 마을사업

기간	사업명	주요내용
2015년 5월	농업용수 물탱크 500t 공사	양배추, 브로콜리 등 밭작물 농업
2015년 7월	어음1리 다목적실 신축공사	어음1리 운동장, 다목적실신축 사업
2015년 4월~12월	마을운동장 잔디 식재 및 웬스 설치공사	마을운동장 환경조성 및 안전 시설

(2) 자원

100여 가구에 2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어음1 리는 부면동, 계원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동네 풍경은 옛날 농가주택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면서 전원적인 느낌이 난다. 시야를 가로막는 큰 건물이 없어 더욱 편안해 보이고 자연 친화적이다. 마을 명소로는 공샘이 샘물과 수령이 400년 이상 된 팽나무가 있으며 숲과 계곡이 아름다운 마을이다.

마을 서쪽 동네에 수용(修勇)거리라는 정자(팽나무)가 있는데 수용거리 팽나무



<그림 9> 어음마을 팽나무

(송거리 폭낭)라 부른다. 보호수로 지정된 이 나무의 수령은 약 400여 년은 넘은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나무 등치 만보더라도 그만큼 수령을 짐작할 수 있는데 높이가 30m, 둘레 7m나 된다. 몸집이 울퉁불퉁 기괴하여 보는 사람마다 용기를 솟구치게 했다고 해서 수용(修勇)거리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이 나무 그늘에서 여름이면 동네사람들이 모여 장

기, 바둑을 즐기고 밤이면 정담게 옛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역할을 했다.

마을 서쪽 하천변(정지내)에 맑고 가늘게 흐르는 샘물이 있는데 속칭 '공샘이물'이라 한다. 이 샘물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약 400여 년 전 고응삼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 사람은 신분이 천한 목자출신(牧者出身)이면서도 풍수지리에 신통력이 있었다. 어느 날 명당을 찾기 위하여 산천을 헤매다가 물을 먹고 싶었으나 물이 없어 하천변 나무그늘에 쉬면서 지세를 살펴보니 반드시 이 주변에 생수가 있으리라 판단되어 사방을 두루 살펴보던 중 참새 한 쌍이 물에 흠뻑 젖어 바위 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우거진 숲을 헤쳐 암벽 속에 생수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래서 고응삼의 이름을 따서 '공샘이'로 불리어지고 있다.



<그림 10> 공샘이물

(3) 생산물 및 시설

2014년 밭작물 직불제로 밭작물 면적은 전 117ha와 과수 20ha이며 대상 농가 수는 161농가이다. 감귤과 수박, 양배추, 브로콜리가 많이 재배되는 어음1 리는 고지대에 위치한 특성상 타 지역보다 작물을 늦게 수확하고 있다.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대형 마을 창고 2동과 운동장이 주변을 감싸고 있다.



<그림 11> 마을공동창고



<그림 12> 마을 운동장

2. 어음책마을 인식조사 및 분석

1) 설문지 조사

(1) 설문지 구성

설문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먼저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을 중심에 넣었다. 설문에 응할 지역에 현재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나이가 많다는 것을 고려해 설문에 대한 부담이 덜 갈 것으로 예상한 일반적인 책과 관련된 질문을 시작으로 설문 의도 및 설문조사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문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나갔다.

설문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표 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책 및 책마을에 대한 인식, 책마을 만들기의 운영주체 및 지원체제, 책마을 만들기 내용구성, 책마을 만들기에서의 예상되는 문제점, 책마을을 만든 후 기대효과, 응답자의 개인 상황을 적도록 하는 순서로 설문 문항을 설계, 구성하였다.

<표 8> 설문지 구성 목록

변 수	설문 항목	비 고
1. 책 및 책마을에 대한 인식	9문항	
2. 책마을 만들기의 운영주체 및 지원체제	2문항	8지문
3. 책마을 만들기 내용구성	3문항	13지문
4. 책마을 만들기에서의 예상되는 문제점	1문항	6지문
5. 책마을을 만든 후 기대효과	10문항	
6. 응답자의 개인 상황	5문항	

(2) 조사 대상 및 방법

어음책마을 만들기의 방향설정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만들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책마을을 만들 어음1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현재 어음 1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은 비록 생활을 위해서 어음마을을 떠나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어음 1리 향우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설문조사의 방법은 연구자의 연구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유도될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하기 위해 마을의 현재 이장님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 수거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 11일 동안 진행하였다.

(3) 설문지 내용

연구를 위한 보조 자료의 수집수단으로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6개의 변수로 구성하였고,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부록] 참조).

애월읍 어음 1리를 책마을로 만들고자 함에 있어 우선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7문항으로 질문지를 만들었다.

첫째, 생소한 물음에 대한 거부감 및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책에 대한 친밀도를 묻는 질문으로 설문을 시작하였다. 이어 어음을 책마을로 만드는 것에 동의하는가, 책마을이 어음과 잘 어울리는지, 책마을이 문화·관광 상품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책마을을 외부에 적극 홍보해야하는지, 어음책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이 있어야하는지 등에 대한 물음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어음을 대표하는 상징은 어음책마을을 스토리텔링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표 9> 책마을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

변 수	문항
하루 중 여가 시간	1-1

여가 활동으로 독서를 하는지의 여부	1-2
어음을 책마을로 만드는 것에 동의 한다	2-1
책마을은 어음과 잘 어울린다	2-2
책마을은 문화관광 상품으로 가치가 있다	2-3
책마을을 외부에 적극 홍보해야한다.	2-4
어음책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이 있어야한다	2-5

둘째, 책마을 만들기의 운영주체 및 지원체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운영주체가 마을주민, 전문가, 예술단체 위탁, 지방자치단체 중 어디가 되어야 마땅한지, 어음 1리를 책마을 만들기를 함에 있어서 사회적 관심, 행정적 지원, 사업비 확보, 협의체 구성 중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역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10> 책마을 운영주체 인식조사

변 수	문항
어음책마을의 운영주체는 누구(어디)가 되어야하는가?	3-1
어음책마을만들기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3-2

셋째, 책마을 만들기 내용구성으로 바람직한 책마을의 모습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책마을 내용구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가능한 많이 알고 싶어 책마을 내용구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

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했다.

“마을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기회를 마련한다.”, “책마을이 성공하려면 교육적 요소가 포함되어야한다.”, “방문자들의 문화·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어야한다.”, “작가들이 작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작공간을 조성 지원한다.”, “마을의 농산물 판매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야한다.” 등의 보기를 주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를 순서대로 적도록 했다.

어음책마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는 책 교환 및 판매 시장(플리마켓)운영, 저자초청 강연회 및 펜싸인회 실시, 책 관련 공연 및 전시회 실시, 특화된 책방(그림책, 시집, 여행서 등)운영, 책 관련 캠프(출판캠프, 독서캠프, 기자캠프)개최, 책 영화제 및 축제 개최, 책 관련 길 조성 등의 제시문을 제공하여 3가지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쓰도록 했다. 또 최대한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응답자께서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생각나는 대로 적도록 개방형 질문을 활용했다.

<표 11> 어음책마을내용구성 인식

변 수	문항
어음 책마을 내용구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4
어음책마을에 필요한 프로그램	5-1
설문 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5-2

넷째, 어음책마을 만들기에서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음책마을 만들기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 예산부족,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부족, 공간 확보문제, 전문가 참여부족,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무관심,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표 12> 예상되는 문제점

변 수	문항
어음책마을 만들기를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	6

다섯째, 어음책마을을 만든 후의 기대효과로 어음에 책마을이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해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책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취업 및 학습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어음마을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집을 새로 짓는 등 개발이 늘어날 것이다”, “방문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다”, “어음마을의 주민수가 늘어날 것이다”, “공연, 이벤트 등 좋은 프로그램이 늘어날 것이다”, “다른 마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음이 더 널리 알려질 것이다” 등의 문항으로 조사를 하였다.

<표 13> 책마을 만든 후 기대효과

변 수	문 항
책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7-1
취업 및 학습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7-2
어음마을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7-3
집을 새로 짓는 등 개발이 늘어날 것이다	7-4
방문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7-5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다	7-6

어음마을의 주민 수가 늘어날 것이다	7-7
공연, 이벤트 등 좋은 프로그램이 늘어날 것이다	7-8
다른 마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7-9
어음이 더 널리 알려질 것이다	7-10

(4) 응답자의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지역주민의 특성은 <표 14> 로 요약하였다. 어음1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평균연령대는 68.71세로 6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50~60세 9명(32.1%), 61~70세 9명(32.1%), 71~80세 6명(21.42%), 81~90세 4명(14.28%)이다.

어음1리에 거주한 평균기간은 35.71년으로 70년 이상도 3명으로 응답되었으며 거의 토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년 이하 1명(5%), 10~20년 6명(30%), 21~30년 3명(15%), 31~40년 5명(25%), 60~70년 5명(25%)이었으며 1950년~1980년까지 어음에 거주하다가 타지로 나간 경우도 한 명 있었다.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 답한 결과를 보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15명(53.57%),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13명(46.42%)으로 나타났다. 어음1리 토박인지 외부에서 이주를 해 와서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출신지역을 쓰도록 했다. 어음1리에 거주한 지 1년이 되는 한명을 제외한 모두가 어음 1리 출신으로 태어나서 이곳을 떠난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표 14> 응답자 특성

변 수	범 주	빈도(명)	백분율(%)
연령	50~60세	9명	32.1%

	61~70세	9명	32.1%
	71~80세	6명	21.42%
	81~90세	4명	14.28%
	합계	28	100%
거주기간	9년 이하	1	5%
	10~20년	6	30%
	21~30년	3	15%
	31~40년	5	25%
	60~70년	5	25%
	합계	20	100%
자녀와의 동거 여부	동거	15	53.57%
	비동거	13	46.42%
	합계	28	100%
출신지역	어음1리	27	96.42%
	기타지역	1	3.57%
	합계	28	100%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본 연구를 위해서 설문 조사지는 총 60부를 배포하였는데 그 중에서 회수된 설문 조사지는 43부로 71.6%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 조사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성심성의껏 질문에 응해주셨으나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나이가 상당히 많다는 특성상 부적절한 설문지가 많았다. 즉 설문을 시작한 하였으나 중간부분이나 뒷부분의 대부분이 무응답 되어 있어서 설문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조사지들을 제외시켰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8부의 설문조사지가 유효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이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ver. 17.0이며, 설문 응답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책마음로 만들기에 관련하여 제시된 문항들에 대해 28명이 유의미한 응답을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인 책마음 만들기 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음 1리를 책마음로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책마음에 대한 인식과 기대효과에 대한 의견은 <표 15>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5점 만점으로 분석한 결과 매우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다. 즉 평균 3.5점 이상이 73.3%이고 최하위도 3.07점으로 3점 이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 어음 1리 주민들의 책마음에 대한 기대는 마을발전이나 개인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까지는 책마음로 인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으로까지는 큰 기대와 예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5> 책마음에 대한 인식과 기대효과

문 항	N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표준 편 차
2-1. 어음을 책마음로 만드는 것에 동의 한다	28	2	5	4.29	.713
2-2. 책마음은 어음과 잘 어울린다	28	2	5	3.89	.832

2-3. 책마을은 문화관광 상품으로 가치가 있다	28	1	5	3.89	.956
2-4. 책마을을 외부에 적극 홍보해야한다.	28	1	5	4.14	.891
2-5. 어음책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이 있어야한다	28	3	5	4.32	.670
7-1. 책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28	2	5	3.89	.629
7-2. 취업 및 학습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28	1	5	3.25	.928
7-3. 어음마을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28	1	5	3.07	.766
7-4. 집을 새로 짓는 등 개발이 늘어날 것이다	28	1	5	3.11	1.166
7-5. 방문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28	2	5	3.68	.670
7-6.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다	28	1	5	3.61	1.031
7-7. 어음마을의 주민 수가 늘어날 것이다	28	2	5	3.43	.836
7-8. 공연, 이벤트 등 좋은 프로그램이 늘어날 것이다	28	2	5	3.75	.928
7-9. 다른 마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8	2	5	3.93	.858
7-10. 어음이 더 널리 알려질 것이다	28	1	5	4.14	.891

어음책마을 만들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표 1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지역 주민의 관심 및 참여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예산부족의 문제를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6> 어음책마을 만들 때 예상되는 문제점

문항	N	빈도(명)	퍼센트
예산부족	28	9	32.1
지역 주민의 관심 및 참여부족	28	15	53.6
공간 확보문제	28	1	3.6
전문가 참여 부족	28	-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무관심	28	2	7.1
복잡한 행정절차	28	1	3.6

어음책마을의 목적은 책을 자연스러운 일상생활로 연결될 수 있는 친밀감을 유도하여 제주형 지식재산마을을 조성하는 일이다. 어음1리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 및 어음 1리 향우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지에서도 나타났듯이 어음책마을 만들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주거하는 지역을 책마을로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책마을에 대한 인식 및 기대효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최대값 5 중 4 이상으로 나타난 문항을 보면 “어음을 책마을로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 “책마을을 외부에 적극 홍보해야한다”, “어음책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이 있어야한다”, “어음이 더 널리 알려질 것이다” 등에 많은 점수를 주었다.

설문지 조사에서와 같이 어음을 대표하는 상징이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다”에 매우 높은 점수를 주었다.

어음책마을을 만드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중에 가장 많은 수의 응답이 지역주민의 관심 및 참여부족의 문제를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지역의 특성에 알맞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통해 지역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여타의 지자체별 유사한 문화공간과는 차별화되는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의

미 있는 관계망 형성에 어음마을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하지만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책마을이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창조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하며, 전문가들에 의해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와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3. 어음책마을 만들기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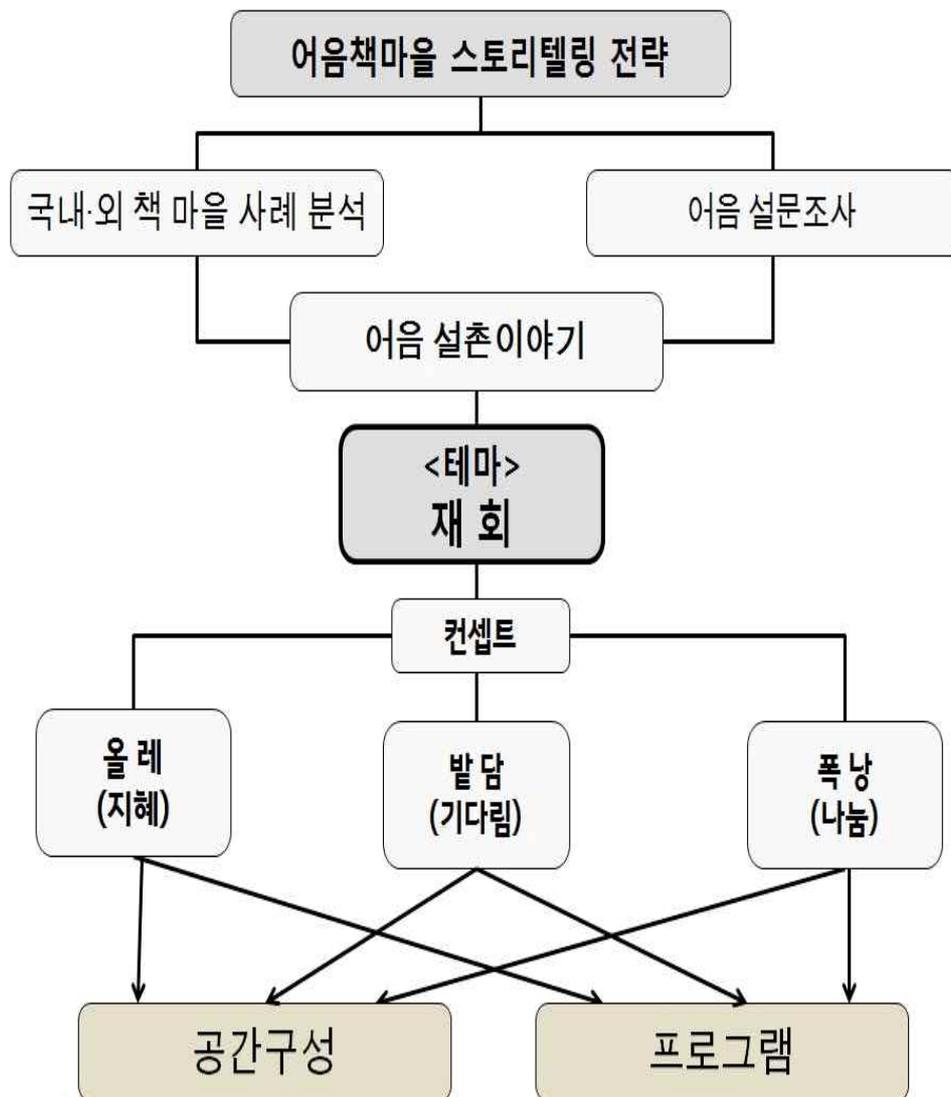


<그림 13> 어음책마을 지도

1) 어음책마을 스토리텔링 전략

어음책마을 스토리텔링 전략으로 우선 국내외 책마을 사례를 통해 책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어음책마을만들기의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는 2곳 책마을을 탐방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어음마을사람들의 책마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책마을 조성 전략을 위한 조사를 하였으며 어음 1리 실촌 이야기에서 마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무형의 가치창출을 이룰 수 있는 주제를 어음 실촌 이야기의 변형을 통해 도출했다. 감동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인 스토리텔링을 통한 책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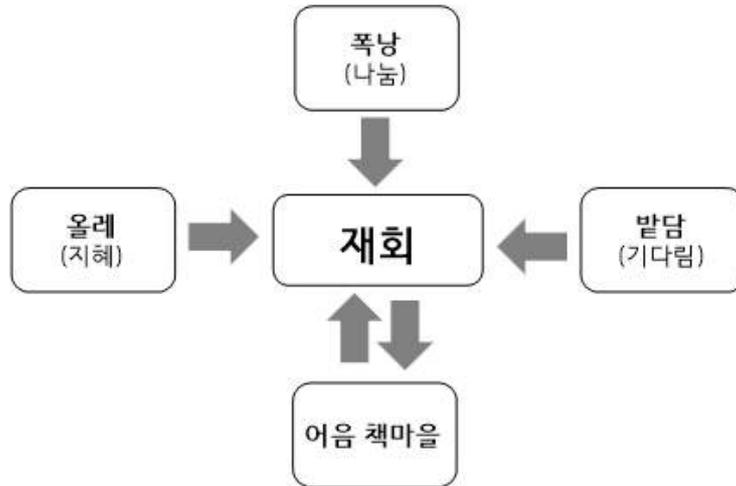
만들기로서 어음책마을에서는 누구에게나 공통의 감성을 불러올 이야기 테마의 하나로 '재회(再會)라는 주제를 설정했고, 제주적인 전통과 문화를 잘 반영해주며 어음마을 곳곳에 잘 남아있는 올레, 발담, 폭낭을 콘셉트로 정했다. 자연에 순응하는 제주인의 지혜를 상징하는 올레, 고난극복의 결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발담, 타인을 위한 배려와 나눔의 실천으로 자신이 평생 이루고자했던 목표가 이루어지는 삶의 상징으로 폭낭을 의미화 했다. 또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끌어낸 테마와 콘셉트가 실행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4> 어음책마을 스토리텔링 전략

(1) 어음책마을 테마

어음 마을의 설촌(設村)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설촌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테마를 이끌어내어 책마을의 매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 스토리텔링을 하였다.



<그림 15> 어음책마을 테마

(2) 어음책마을 콘셉트

어음책마을에서는 단순히 책으로 특화된 마을만들기로서의 책마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을을 상징하는 테마(재회)를 정하고 그에 따른 3개의 콘셉트(올레, 발담, 폭낭)를 도출해내어 스토리텔링 하였다.

설촌이야기의 원형에서는 주인공이 가출한 남편을 마냥 기다리다가 죽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으나 제주여성의 강인함과 제주적인 이미지 부각을 위해 주인공이 부단한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로 변형시켰다. 이야기의 원형에서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스토리 변형을 통해 갈등구조를 의미화 했다. 결혼한 부부가 살아갈 집의 올레를 만들면서 그 형태를 놓고 부부의 의견이 다툼으로 인한 갈등구조로 이야기를 이끌어 주인공의 지혜로 만들어진 ‘올레’를 콘셉트로 잡았다. ‘올레’ 콘셉트는 제주의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인간의 지혜로

의미화 했으며 콘셉트 올레의 지혜를 상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세상의 현책방’과 ‘특정주제의 책방’을 기획하였다. 지혜와 관련된 프로그램 ‘밭보다 책’은 밭을 돌보다가 책망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밭과 책을 놓고 비교우위를 따지는 ‘밭보다는 책’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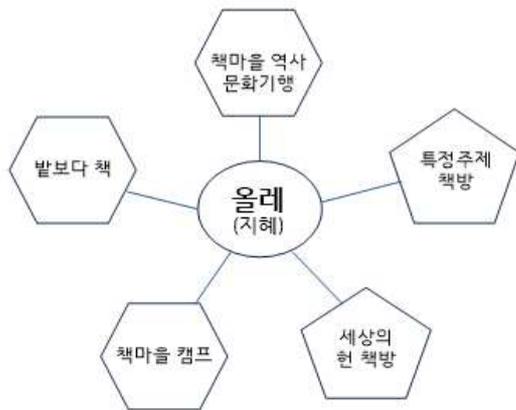
두 번째 콘셉트인 ‘밭담’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혼자서 고난을 극복하며 이루어 놓은 결과물이다. 밭담에는 기다림과 고난극복의 의미를 부여한 공간으로 ‘책감옥’과 ‘북카페’를 만들었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으로는 1년에 1회 열리기를 기다려야하는 ‘책마을콘서트’, ‘책마을영화제’와 ‘책마을길 산책’을 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인공의 마음을 느낀다.

주인공이 폭낭으로 변해 어음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묵묵히 하며 배려와 나눔의 삶을 살고 있노라니 그리워하던 남편을 만난다는 콘셉트 ‘폭낭’의 공간은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작가의 방’,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책 보러오는 게스트하우스’, 갤러리의 전시물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 ‘책마을갤러리’를 두었고, 이들을 풀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물적 나눔이 가능한 ‘책마을 데이’와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필요한 사람은 어음책마을에서 얻어갈 수 있는 ‘책 폴리마켓’을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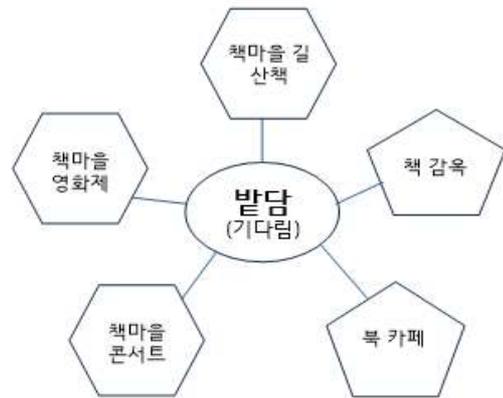
스토리텔링 되어 진 콘셉트의 의미는 <표 17>로 제시하였으며, 컨셉트를 실행할 공간과 프로그램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그림에서 책마을 공간은 오각형으로, 책마을 프로그램은 육각형으로 구분하여 표시했다.

<표 17> 어음책마을 콘셉트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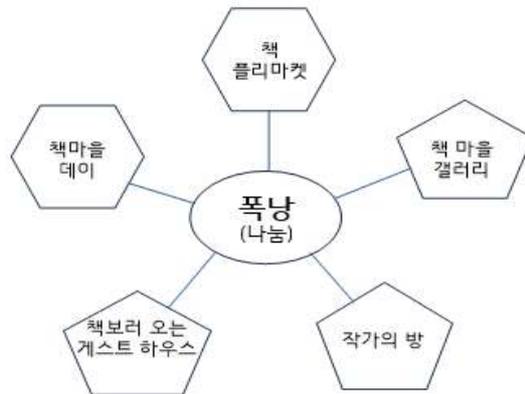
어음책마을		의 미
콘 셉 트	올레	자연에 순응하는 인간의 지혜
	밭담	기다림, 극복
	폭낭	배품, 나눔



<그림 16> 어음책마을 콘셉트 1



<그림 17> 어음책마을 콘셉트 2



<그림 18> 어음책마을 콘셉트 3

2) 어음책마을 스토리텔링

어음1리에 만들어진 책마을이라는 공간에 스토리를 입히는 일은 뼈대만 세워놓은 건축물에 인테리어를 하는 일과 같다. 공간스토리텔링은 공간에 대한 체험을 통해 인간과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공간에 대한 이해와 읽기를 유도하는 자극제가 되고 공간을 통해 장소 정체성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또 공간 스토리를 통하여 공간 이미지 형성이 쉽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고 각인효과 등으로 공간 기획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과 공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²³⁾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야깃거리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탈리아 베로나 시(市)의 ‘로미오와 줄리엣’스토리텔링, 영국 코벤트리의 중세 ‘고바디’의 이야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독일의 ‘로렐라이의 언덕’, 일본 고치(高知) 현(縣)의 ‘하루우라라’ 등은 인간이 관심을 기울이고 그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들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성공적인 모델들이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든 감성을 움직이는 스토리와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감성의 시대, 이야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모든 것에 스토리를 입힘으로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책마을 스토리텔링 전략을 세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였다.

(1) 스토리 원형

어음의 원래 마을 이름은 ‘부면이’이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 맨 처음 터를 잡아 살았던 사람은 문 씨와 송 씨 부부였다. 남편 문 씨가 부부갈등으로 가출을 해버렸고 홀로 남은 송 씨 부인은 날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자 한이 맺혀 세상을 떠났다. 부인의 평생소원은 남편의 얼굴을 한번만이라도 보고 죽는 것이 애절한 소망이었다고 해서 부면이(夫面伊)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2) 스토리 변형

문 씨가 가출 하게 된 부부갈등의 원인은 두 부부가 살 집을 지으면서 울레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놓고 서로의 의견을 말하면서 부터이다. 문 씨는 우마차가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곧장 울레를 내자고 하고, 아내 송씨는 S자로 울레를 내자고 한다.

아내는 그 이유를 4가지로 들었다. 큰 한길에서 정낭 안쪽에 있는 집으로 들어오는 거센 바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여름과 같이 더울 때에 윗도리를 벗고 있어도 밖에서 빨리 보이지 않도록 하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남

23) 박희곤, 2016, 공간스토리텔링 연구과정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p4. 재인용

의 집을 방문할 때도 인기척 없이 마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S자가 휘어지는 중간 즈음에서 ‘삼촌 !!! 잇수광’ 하면서 지금 내가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면 들어가는 사람도, 집안에 있는 사람도 부담이 없어지는 시간적 여유 공간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제주의 잠귀신은 직진 밖에 할 줄 모른다고 하니 올레를 S자로 구부리자고 한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으나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다. 자존심이 상한 마음을 들킬까봐 아내가 말한 대로 올레를 S자로 구부려 만들었다.

잔치나 제사 때 큰일 칩에서는 꼭꼭 음식을 동네 집에 나누는 풍습이 있었다. 먼 동네까지도 상(喪)이 있거나 나이 드신 어르신이 계신 집에는 반드시 음식을 나누었다. 그것은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얽혀진 의무였다.

음식을 나눌 때 아낙네들은 대를 엮어 납작하게 짠 차룽에 넣어서 돌렸다. 이럴 때 찾아간 집에 주인이 없더라도 그냥 문을 열고 방안에 넣어 두면 되는 것이다. 제주의 집들은 문을 잠그는 버릇이 없었으므로 이런 일은 예사였다. 밖에서 돌아온 주인은 어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으로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내 보내준 상황을 파악한다. 특히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날에는 사뭇 재미있는 풍경이 연출된다. 차룽이 담과 담을 넘어가는 모습이다. S자로 이루어진 골목이 이어진 대문으로 들어가려면 한참을 가야하는 경우 대문까지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이 부엌 가까운 곳에 서서 ‘삼촌~~’ 또는 ‘순택아~~’하고 큰소리로 부르면 된다. 이렇게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서로간의 정을 나누며 살았던 것이다.

올레 하나를 두고 여러 집이 함께 사용하는데 하나의 올레를 사용한다고 해서 “흔올렛집”이라 부르며 돈독한 우의를 다지며 살았던 공동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단어이다.

송 씨 부인이 잘 만들어진 올레를 물이 가득 담긴 물허벅을 지고 집으로 걸어 들어 가는데 앞에 누군가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남편 문 씨였다. 어디를 가느냐고 묻는 아내의 말에 시원한 대답도 하지 않고 제 갈 길만을 가고 있는 남편을 심드렁히 쳐다보며 송 씨 부인은 집으로 들어왔다. 남편이 외출을 했으니 송 씨 부인은 밭일을 혼자만 나가야했다. 밭은 온통 돌로 뒤 덮혀 흙이 안보일 정도이다. 송 씨 부인은 돌을 밭 가장자리로 나르고 차곡차곡 쌓는 일을 하루 종일 해야 했다. 해가 저물자 집으로 돌아온 송 씨 부인은 그제 서야 남편의 존재를 인식하고 일하던 내내 보이지 않던 남편을 찾았지만 찾을 길이 없었다.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린 남편을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밭일 밖에 없었다. 하늘에 해가 박혀있는 날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밭으로 나갔다. 송 씨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면서 한담한담 쌓아 만들어진 밭을 둘러싼 돌담은 어느새 흑룡만리(黑龍萬里)를 이루었다.

그리고 화산에서 태어난 수많은 돌 만큼이나 제주에는 삼을라와 세공주의 자손들이 번창해 풍족한 섬을 만들었는데, 이곳을 보기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관광지가 되었다.

홀로 남은 송 씨 부인이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어느 날 공샘이 물에서 허벅 가득 물을 길어 수용거리를 지나오던 중 신선을 만난다. 신선은 “이곳에서 나무로 서있으면 기다리는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것 이니라”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는데 송 씨 부인은 순간 폭낭(팽나무)으로 변화였다. 비록 폭낭으로 변했지만 송 씨 부인은 남편이 돌아와 다시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귀를 더 기울여 남편의 소식을 들으려 낮과 밤, 더운 여름 추운겨울이 따로 없었다. 남편의 소식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몸집을 더 키워 더욱 커다란 그늘을 만들었다. 더 넓어진 그늘 아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무리들 중에는 오래전에 말없이 떠나갔던 남편이 보였다. 송 씨 부인이 꿈에 그리던 남편의 얼굴이 보이자 “어디 갔당 이제사 읍디강!” 하며 와락 껴안으면서 다시 사람으로 되살아났다. 그러자 매우 섭섭한 폭낭은 얼굴이 일그러져 화를 내는 모습으로 변했다. 그래서 지금도 수용거리 폭낭은 화가 풀리지 않은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서있다.

폭낭은 제주의 마을마다에 싯커리(삼거리), 닛커리(사거리)에는 어김없이 커다란 그늘을 만들며 서있다. 삼삼오오 마을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여름날 더위를 식히며 쉴 수 있는 곳이 폭낭 그늘이다. 이곳에는 마을의 모든 소식들이 들어오고 나간다. 지난 밤 식계(제사)먹은 일에서부터 그 동네를 떠나 시집 간 딸들의 동정까지 총망라하는 장소이다. 사랑방이 따로 없던 제주의 민가에서 ‘폭낭 그늘’은 없어서는 안 되는 소통의 장이었다.

제주 칼바람의 방향에 따라 허리가 쓰러질 듯 굽어있는 폭낭들은 이곳에서 힘든 몸을 잠시나마 쉬어가는 동네 어르신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친근감을 더해 준다. 모진 세월을 견디며 울퉁불퉁해진 나무의 밑 둥은 자식 뒷바라지하는 동안 깊

어진 우리들 부모님 이마의 주름과 흡사하고, 그 많은 돌밭을 일구었던 굳은살이 박힌 손을 닮아있다. 그에 더해 송악이 휘감아 올라가도 한마디 불평 없이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은 마을의 희비를 모두 알고 있기에 굳게 다물고 있는 어르신들의 입을 닮았고, 바람의 방향과 같이하여 흰 허리로 서있기는 흡사 마을 젊은이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마을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 같다.

<표 18> 어음책마을 스토리텔링의 원형과 변형

	원 형	변 형
스토리 테마	가출한 남편을 기다리다 죽음	시련을 겪고 다시 만남(재회)
등장인물	어음을 설촌 한 부부	어음을 설촌 한 부부, 신선(神仙)
갈등구조	남편이 집을 나감	집의 올레를 만들면서 그 형태를 놓고 부부의 의견이 다름

(3) 어음책마을 스토리텔링 구성

책마을이 어음이라는 마을에 조성됨에 따라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만들기로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공간만들기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획되어야하며, 어음책마을이 제주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지는 책마을이므로 제주적인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것은 제주 유일의 책마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어음 1리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설촌이야기의 서사구조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스토리의 변형을 통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 어음마을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여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표 19> 어음책마을 스토리텔링 내용 구성

스토리텔링	원형	남편 문 씨가 부부갈등으로 가출을 해버렸고 홀로 남은 송 씨 부인은 날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자 한이 맺혀 세상을 떠났다.				
	변형	플롯	개념	의미	프로그램	공간스토리텔링
		발단	올레	지혜	발보다 책	세상의 헌책방
					책마을 캠프	
					책마을역사·문화기행	특정주제 책방
	갈등	발담	극복 기다림	책마을 콘서트	책감옥	
책마을 영화제						
책마을길 산책				북카페		
절정	폭낭	배려 나눔	책마을 데이	책 보러오는 게스트하우스		
			책 플리마켓	작가의 방		
대단원	어음	재회		헤어져서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부적의 마을		

3) 어음책마을 운영 안

책마을은 책과 문화·예술이 접목되어 책의 판매, 전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주로 하는 책으로 특화된 마을이다. 이렇듯 책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책마을만들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실천 과정이다.²⁴⁾

본 연구의 핵심인 어음책마을 구성 내용에 따라 책을 통해 보는 것, 사유하는 것, 씬, 노닐, 나눔의 역할을 할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인문과 문화의 본질을 전달하는 공간인 어음책마을에서 진행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가 되도록 지역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공간 만들기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프로그램으로서 어음책마을만들기의 구체적인 운영 안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운영 안

<표 20> 올레 시설운영 (1)

컨셉트	올레 (지혜)
책마을 시설	세상의 헌책방
스토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상시운영 ● 장소 : 마을창고 ● 주제 : 가치 있는 헌책 ● 운영 : 제주에 있는 모든 헌책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간으로 실제 헌책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기능 ● 효과 : 필요한 책은 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을 누군가 읽을 수 있게 내놓는 문화 형성과 책마을 활성화

24) 김옥분 (2012), 「지역 어메니티 특성을 고려한 책마을 만들기 방안 연구 - 춘천시 신동면 실례마을을 중심으로 -」, p.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누구나
--	--

<표 21> 올레 시설운영 (2)

콘셉트	올레 (지혜)
책마을 시설	특정 주제 책방
스토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상시운영 ● 장소 : 책마을 내 원하는 개인 집 ● 주제 : 한 가지 주제의 전문서적을 구비해 같은 취향이나 전문가들이 모여드는 개성 있는 이색적인 책방 ● 운영 :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를 정한다. 우선 물고기, 지질, 제주학, 농업, 야생화, 만화, 그림책 중 3개를 정해 특화된 책방 운영 ● 기대효과 : 특정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전문가의 관심은 일반인들로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 ● 대상 : 원하는 개인이 참여

<표 22> 발담 시설운영 (1)

콘셉트	발담(기다림)
책마을 시설	책감옥

스토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상시운영 (1회 1명) ● 장소 : 작은 마을 창고 내 ● 운영 : 집이나 도서관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 방법 : 책감옥에 들어가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정하고 정해진 시간은 모두 채워야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책감옥 안에는 화장실과 침대, 책을 읽는 책상만 갖춰놓아 책과 관련된 활동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만들어 운영 ● 효과 :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오로지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자아발전과 작은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부여 ● 대상 :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	--

<표 23> 발달 시설운영 (2)

콘셉트	발 담(기다림)
책마을 시설	북카페
스토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상시운영 ● 장소 : 마을 창고 2동 중 작은 동 ● 주제 : 다양한 책과 카페가 결합된 공간, 일반적인 책은 물론 그림책, 만화책을 비롯한 세상의 헌책들을 읽으면서 카페 메뉴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 운영 : 북카페는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이곳에서 책을 읽다가 배고프면 멀리 식당을 찾

	<p>아나가지 않아도 주변에서 음식이나 간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 : 책을 읽으면서 카페메뉴와 식사까지 즐길 수 있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접근성 확대 ● 대상 : 누구나
--	---

<표 24> 폭낭 시설운영 (1)

콘셉트	폭 낭 (나눔)
책마을 시설	책 보러 오는 게스트하우스
스토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상시운영 ● 장소 : 어음에 위치한 기존 게스트하우스 ● 주제 : 종이 책의 향기가 있는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책을 마음껏 읽고, 조용한 사유를 즐기는 북스테이 ● 운영 : 책으로 인테리어 된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스테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책으로 만드는 편안하고 따뜻한 유기체적 공간으로 확대 ● 효과 : 단지 먹고 마시는 유흥여행, 여가이던 과거를 버리고 공간의 주인과 방문객이 책과 문화를 매개로 자신과 조우하며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휴식의 기회 부여 ● 대상 : 누구나

<표 25> 폭낭 시설운영 (2)

콘셉트	폭 낭 (나눔)
책마을 시설	작가의 방
스토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3개월에 1회 ● 장소 : 마을회관 ● 방법 : 어음주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전시해 놓은 공간에서 제주도는 물론 국내 · 외 다양한 작가들을 초청해 책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팬 싸인회도 겸하여 운영 ● 운영 : 작가와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3개월에 한번 작가의 방을 찾을 대상을 모집하고 정한 날짜에 모이는데, 부담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작가의 방에 모이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져올 수 있는 음식을 가져와 함께 나눔 ● 기대 : 편안한 분위기에서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책에 대한 친숙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상 : 참가를 원하는 누구나

<표 26> 폭낭 시설운영 (3)

콘셉트	폭 낭 (나눔)
책마을 시설	책마을 갤러리

스토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1년에 4회 계절별로 ● 장소 : 세상의 헌책방 내 공간 ● 방법 : 특정 주제를 가지고 그에 알맞은 전시물을 관련도서와 함께 볼 수 있도록 전시 ● 기대 : 특색 있는 주제(그림책포스터, 외국 그림책 포스터, 외국 아트 포스터, 어린이 책 포스터, 그림책 엽서 등)와 함께 관련도서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하여 전시효과를 극대화 ● 팁 : 출판사의 협조를 받아 포스터나 엽서를 하나 씩 가져갈 수 있게 하며 갤러리에 전시되었던 주제가 들어간 컵받침, 띠 벽지 등의 문화상품 개발 등도 기획 ● 대상 : 누구나
--------	---

(2) 프로그램 운영 안

<표 27> 올레 프로그램 (1)

콘셉트	올레 (지혜)
책마을 프로그램	발보다 책 (발 보다 책)
스토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일주일에 2~3일 ● 장소 : 마을회관 ● 주제 : 어음마을 주민들의 책과 관련 다양한 문화 활동과 힐링의 시간과 기회부여 ● 방법 : 명상, 요가, 다도,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책만들기, 그림

	<p>책 읽고 추억 담긴 음식 만들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 : 책과 익숙하지 않은 지역 어르신들이 책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결과물들을 통해 문화에 대한 인식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어음주민들 간의 친밀감 형성과 공동체 회복, 지속한 가능한 마을 만들기 가능 ● 대상 : 어음 마을 주민
--	--

<표 28> 올레 프로그램(2)

콘셉트	올레 (지혜)
책마을 프로그램	책마을 캠프
스토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 장소 : 제주 도내 마을 ● 방법 : 제주의 4.3, 유배, 예술인 등 선정된 주제를 체험하고 나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한편의 책으로 만들기 ● 운영 : 우선 취재 방법론을 강의로 듣고, 선택된 장소를 답사해 기사작성 후 느낌 공유와 함께 작성한 기사정리를 하고 책으로 제작 ● 기대 : 책의 경제학으로 판매와 소비가 있다면, 생산으로서 책 만들기 ● 대상 : 학교와 연계한 학생중심

<표 29> 올레 프로그램(3)

컨셉트	올레 (지혜)
책마을 프로그램	책마을 역사·문화기행
스토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주말(일반인), 상시(청소년) ● 장소 : 제주도내 어디든 ● 운영 : 제주와 관련된 주제로 쓰인 책을 선정해서 읽고 책속에 등장하는 장소를 찾아가는 기행으로 현장답사를 통한 책속의 장소를 직접 체험해 더 큰 감동으로 책이 달라 보일 수 있는 효과 기대 ● 방법 : 일반인 대상 또는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이 해설을 하도록 해 더욱 생생한 스토리텔링이 되도록 유도 ● 효과 : 지역 중심의 교육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으며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협력문화 시스템 구축 ● 대상 : 일반인, 청소년

<표 30> 발담 프로그램 (1)

컨셉트	발담(기다림)
책마을 프로그램	책마을 콘서트
스토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책마을 OPEN 기념일 ● 장소 : 마을운동장 ● 방법 : 시를 바탕으로 한 가사를 노래로 들려주거나 시인의

	<p>산문과 관련된 내용을 가사로 만든 노래를 들으면서 작가와의 시간을 갖는 기회를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 책을 소재로 한 문화체험 즉 연극, 저자강연 등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선정된 주제에 맞는 책을 통해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 ● 기대 : 현대인들의 메말라 가는 정서에 심리적, 정서적 통합과 소통을 기할 수 있으며, 콘서트와 함께 인문학 강연도 곁들여 책을 매개로 한 인문독서 기반의 참여형 문화예술 캠프로 책마을의 품격 확립 ● 대상 : 도민 및 일반 관광객
--	--

<표 31> 발담 프로그램 (2)

컨셉트	발 담(기다림)
책마을 프로그램	책마을 영화제
스토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1년에 1회 ● 장소 : 마을회관 또는 운동장 ● 주제 : 원작과 함께하는 “북시네마” 개최 ● 운영 : 영화제의 주제와 규모를 시기와 상황에 알맞게 정하며 원작 소개와 판매, 영화 상영 및 논의가 이루어지는 축제 ● 효과 : 책과 영화를, 영화와 삶을 연관시켜 문화와 사회와 인간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논리적 사고와 표현, 가치관 형성에도 기여. 또 영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대상 :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표 32> 발담 프로그램 (3)

<p>콘셉트</p>	<p>발 담(기다림)</p>
<p>책마을 프로그램</p>	<p>책마을길 산책</p>
<p>스토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상시운영 ● 장소 : 어음마을 내 ● 주제 : 어음책마을길을 통하여 어음와 더 나아가 제주를 느낄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산책 ● 방법 : 어음책마을길(쉽광길, 어음와여길, 흑룡만리길)을 산책 하면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주변을 사진으로 찍어와 간단한 엽서를 만들어 전시하거나 책마을길과 관련된 정보와 의미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 ● 기대 : 역사·문화 및 환경·생태와 건강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주문화에 기반을 둔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제주다움을 느끼며 걷는 길 체험 ● 대상 : 어음책마을을 찾아오는 내방객

<표 33> 폭낭 프로그램 (1)

<p>콘셉트</p>	<p>폭 낭 (나눔)</p>
<p>책마을 프로그램</p>	<p>책마을 데이</p>
<p>스토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마을 데이 :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와 <로미오와 줄리엣>의 작가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날을 기념하여 정한 세계 책의 날(정식 명칭은 '세계

	<p style="text-align: center;">책과 저작권의 날')인 4월 23일을 책마을 데이 로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책마을 일대 ● 방법 : 이 날은 빛을 책으로 갚는 날이다. 자신이 빛을 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책 선물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를 통해 그리운 사람과의 재 연결을 유도하며 다시 만나는 기회를 가지며, 책마을 데이의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 책관련 퍼포먼스를 한다. 마음에 드는 책 속 등장인물의 의상이나 마스크트를 재현해 착용하는 행사 진행 ● 운영 : 그 동안 잊고 지내왔던 친구, 부모, 연인, 이웃에게 사랑의 빛을 갚는 날로 정해 좋은 책 선물해주기 ● 효과 :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와 <로미오와 줄리엣>의 작가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날을 기려 정한 세계 책의 날(정식 명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책마을 데이로 정하고, 행사를 통해 책마을을 홍보 ● 대상 : 누구나
--	--

<표 34> 폭낭 프로그램 (2)

컨셉트	폭 낭 (나눔)
책마을 프로그램	책플리마켓
스토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2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 장소 : 마을운동장 ● 방법 : 책은 물론 각자 개성을 살린 아이디어 상품에 이르기

까지 풍성한 상품들로 가득한 장시 개설

- 운영 : 셀러 20명을 사전에 모집하고 헌책의 매매 및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참여 출판사와의 협의로 책 할인도 함께해서 풍성한 마켓이 되도록 운영
- 기대 : 플리마켓을 통해 사는 사람은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고 어음책마을 홍보의 기회로 활용
- 대상 : 책마을을 찾는 사람이나 관광객

V. 요약 및 결론

급속한 성장으로 시대가 많이 바뀌어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다양해졌다. 종이책 보다는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로 어음마을에 질적 문화향유의 제고를 위한 책마을을 제안하였다. 특히 농사일로만 평생을 살아오신 어음리 지역민들에게 문화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통로역할을 할 책으로 특화된 문화공간으로서의 마을 만들기를 기획하였고, 지금까지 국내는 물론 국외에 만들어진 책마을들에는 시도되지 않은 책마을 조성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하였다.

어음책마을 만들기를 위한 본 논문의 구성은 I.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하였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책마을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III. 어음책마을 구성에 대한 가능성 모색을 위해 국내는 물론 외국의 사례분석을 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조성되어 있는 대표적 책마을 두 곳을 직접 탐방하여 책마을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대표들과의 인터뷰를 하였고 문제점을 분석을 통하여 어음책마을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IV. 본 논문의 주제인 어음책마을 만들기 기본구상을 위해 먼저 어음 1리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고, 무엇보다 마을사람들이 어음을 책마을로 만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음책마을 인식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어음책마을만들기 방안으로 마을의 테마(재희)를 설정한 다음, 가장 제주다운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3개의 콘셉트(올레, 밭담, 폭낭)를 도출해 내어 이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세웠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였다.

마을만들기란 말이 뜻하는 의미는 생활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과 장소를 만들어가는 삶터 가꾸기, 마을주민의 조직(공동체)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사소통경로와 활동체계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이루기”, 책임감 있고, 자격 있는 건강한 마을 사람을 기르는 “인재만들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²⁵⁾라고 정의하였다.

삶터 가꾸기, 공동체이루기, 인재만들기라는 목표를 두고 책을 매개로한 문화가 자리한 마을로 큰 부담 없이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들고 책과 함께 편안하게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책마을로 특성화시키는 일은 품격 있는 문화의 층을 한층 두껍게 하는 것이다. 책이 마을곳곳을 차지하는 책 중심 문화가 되고, 마을 주민 전체가 책방의 주인 노릇을 하는 인문의 마을 속에서 마을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동기를 부여할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으로써 지속가능함이 담보되는 마을 만들기로서의 어음책마을을 스토리텔링 하였다.

어음책마을은 제주에서 인터넷 매체에 밀려버린 종이책을 찾아오는 공간, 다양한 책과 관련된 문화 이벤트마련, 책 즐기기 문화조성, 귀향도시민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활동 및 느린 생활 즐기기의 공간으로서의 책마을이다.

이러한 품격 있는 인문의 마을인 책마을이 다른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낙후되어가는 마을이 책과 예술로 채워지고 문화적으로 재탄생해서 사람들이 찾아 들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품격 있는 마을을 기대해본다.

책마을을 통해 지식사회에서의 여가시간을 개인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책마을 센터의 문화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필수 요소이다. 책을 통한 만남과 교류의 활성화를 이루고, 책마을 축제를 통한 공동체의식 회복 및 함양의 기회가 책마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음책마을은 어음1리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마을의 지명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문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25) 방한영 (2003), 농촌활성화를 위한 지역유산 활용 및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구. P.21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성균·이창언 (2015), 『함께 만드는 마을, 함께 누리는 삶』,
지식의 날개
- 김언호 (2008), 『헤이리 꿈꾸는 풍경』, 파주 한길사
- 백창화·김병록 (2015), 『작은 책방, 우리 책 좀 팝니다!』, 남해의 봄날
- 백창화·김병록 (2011), 『유럽의 아날로그 책공간』, 이야기나무
- 손주호 (1996), 『책을 만나러 가는 길』, 서울 열화당
- 안동규 (2006), 『마을창조(마을 혁신체계의 이론과 실제)』, 소화
- 엔도야스히로 (1997),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황금가지
- 정기석 (2016), 『마을전문가가 만난 24인의 마을 주의자-마을공동체를
위한 전망과 대안을 찾아서』, 펄북스
- 정진국 (2014), 『유럽 책마을에서』, 생각의 나무
- 최정태 (2008),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한길사
- 황기원 (1995), 『책같은 도시, 도시같은 책』, 서울 열화당

《보고서》

- 강승진 (2008), 「제주 지역 농촌발전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목정훈 (2006), 「서울시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신동일 (2013), 「스토리텔링을 통한 제주관광 활성화방안」,
제주발전 연구원
- 이성용 (2009),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진단 및 활성화 방안연구」,
제주발전 연구원
- 지경배 (2007), 「강원도 농촌 어메니티 자원 실태 및 활용방안연구」,
강원발전연구원

《학술지》

- 배영동 (2012), 「농촌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 문화의 재창조」, 민속학 연구 vol.- no 30
- 백승국 (2007), 「게임콘텐츠 기획을 위한 스토리텔링 방법론 : 문화기호학적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회
- 황지욱 (2010),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창조마을의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26 no 11

《학술논문》

- 강 훈 (2013), 「마을 만들기를 위한 교회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 김선직 (2009), 「마을만들기의 전략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 김옥분 (2012), 「지역 어메니티 특성을 고려한 책마을 만들기 방안 연구 - 춘천시 신동면 실례마을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김인환 (2008), 「어메니티를 활용한 문화도시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장규 (2015), 「농촌지역 어메니티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문영섭 (2007), 「농촌 어메니티 자원 활용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 문종화 (2012),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 박희곤 (2016), 「공간스토리텔링 연구과정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 방한영 (2003), 「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유산 활용 및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송영호 (2006), 「마을 만들기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 이미경 (2003), 「영월 책마을 환경 설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장기호 (2014), 「제주농어촌마을 만들기 활성화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 한경면
웃뜨르 권역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웹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terms.naver.com

부산 보수동책방골목, www.bosubook.com/

삼례문화예술촌, www.srartvil.kr/

인천동구청, www.icdonggu.go.kr/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index.htm>

파주 출판도시, www.pajubookcity.org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cafe.daum.net/book4all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헤이리마을, www.heyri.net/

책마을해리 블로그, blog.naver.com/pbvillage

JTV전주방송 , www.jtv.co.kr/ <문화향> 책마을해리

[부록]

어음책마을 만들기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에 재학 중인 김해숙입니다. 본 설문은 어음리를 책마을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정도이며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설문내용은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결과는 무기명으로 처리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7.1

※ **책마을**이란? 책과 관련된 문화와 예술이 접목되어 책의 판매, 전시, 책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주로 하는 “책으로 특화된 마을”을 말합니다.

1. 책마을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1-1 하루 중 여가시간이 많다					
1-2 여가 활동으로 독서를 한다					

1-3 책을 구입하는데 평균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

- ① 1년에 1권 ② 반년에 1권 ③ 3개월에 1권
④ 1달에 1권 ⑤ 1주일에 1권 ⑥ 구입하지 않는다

1-4 책마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질 문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2-1 어음을 책마을로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					
2-2 책마을은 어음과 잘 어울린다					
2-3 책마을은 문화·관광 상품으로 가치가 있다					
2-4 책마을을 외부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					
2-5 어음책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이 있어야한다.					

3-1. 어음 책마을의 운영주체는 누구(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마을주민 ② 전문가 ③ 예술단체 위탁 ④ 지방자치단체

3-2. 어음책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사회적 관심 ② 행정적 지원 ③ 사업비 확보 ④ 협의체 구성

4. 어음 책마을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3가지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 예술의 기회를 마련한다
 ② 책마을이 성공하려면 교육적 요소가 포함되어야한다
 ③ 방문자들의 문화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어야한다.

- ④ 작가들이 작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작공간을 조성, 지원한다
- ⑤ 마을의 농산물 판매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야한다.

5-1 어음책마을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3가지를 선택하여 순서를 써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책 교환 및 판매 시장(프리마켓) 운영
- ② 저자초청 강연 및 싸인회 실시
- ③ 책 관련 공연 및 전시회 실시
- ④ 특화된 책방(그림책, 시집, 여행서 등) 운영
- ⑤ 책 관련 캠프(출판캠프, 독서캠프, 기자캠프) 개최
- ⑥ 책 영화제 및 책 축제 개최
- ⑦ 책 관련 길 조성

5-2. “5-1”의 프로그램 외에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주세요.

6. 어음 책마을을 만들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 ① 예산부족
- ② 지역 주민의 관심 및 참여부족
- ③ 공간 확보문제
- ④ 전문가 참여 부족

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무관심

⑥ 복잡한 행정 절차

7. 어음 책마을에 대한 기대 및 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 문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6-1 책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6-2 취업 및 학습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6-3 어음마을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 할 것이다					
6-4 집을 새로 고치는 등 개발이 늘어 날 것이다					
6-5 방문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6-6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 이다					
6-7 어음마을의 주민 수가 늘어날 것이 다					
6-8 공연, 이벤트 등 좋은 프로그램이 늘어날 것이다					
6-9 다른 마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10 어음이 더 널리 알려질 것이다					

7-1 귀하의 연령대는? (만 세)

7-2 귀하의 성별은?

_____ ① 남 _____ ② 여

